



미디어가 재현하는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과 청년 담론의 재생산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김환희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Media Representation of Community Family as a Fictive Kin and Youth Discourse:

A Narrative Analysis of Television Documentaries*

Hwanhee Kim**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OVID-19 Vaccination Task Force)

The discursive struggle over diverse family structures that is seen in current society questions the range and the definition of the typical notion of family and makes people think about new forms of communal life. This study conceptualizes community family, which is a type of a 'non-typical' family, based on the fictive kin theory by analyzing the narrative of eight television documentaries that have been aired in South Korea since 2010. The subjects of the documentary that depicts community family are all youths who share generational problems and values, and they form fluid solidarity by sharing mental and material resources with each other. The text utilized a variety of narrative strategies: providing contrast and harmony among the characters, adopting a narrative structure that omits the explor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a problem, and illustrating only the hopeful image of a community family. Respectively, the generational problem that should be discussed at the socio-structural level becam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youth and community family was only the second-best option for individuals to respond to the neo-liberal era. In particular, the reproduction of the idealized and romanticized discourse of the youth devalued the seriousness of the structural problem that lies beneath. Korean documentaries have featured community family that seemed to support the discourse of family flexibility. However, the community family's function and meaning were evaluated against the normality of the typical notion of family. Due to the narrative that shifts the responsibility to the individual youth and emphasizes the romanticism of the community, the

* This study modifies the Ph.D thesis of Hwanhee Kim at Ewha Womans University by reanalyzing the newly added subjects. 이 연구는 김환희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9)을 대폭 수정하고, 새로운 연구대상을 추가해 재분석했습니다.

** hwanheek20@korea.kr

possibility of the community family at morphological and practical levels showed realistic limitations. This context of reproduction is not only limited to the community family of the youth but could also exist in the reproduction of any kind of 'non-typical' family. Interpretating these multilayered discourses allows us to step closer to the inherent symbolic meaning of the subjects that are being represented by the media, such as the community family.

Keywords: Community family, Fictive kin, Family diversity, Youth generation, Television documentary, Representation

1.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위기와 해체 담론, 그 흔들리는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과 이를 해결하고자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들은 이제는 다소 진부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혼율과 재혼·입양 한부모 가정부터 동거·사실혼 부부와 최근의 1인 가구 및 비혼의 증가 등이 미디어를 통해 점차 가시화되면서, 헌법상 이성애 기반의 혈연과 법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상가족 담론이 빠르게 쇠퇴(이재경, 2015)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이를 병리적 상태로 규정하고 문제의 원인으로 핵가족화를 지목하며,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가족 담론의 재건과 이를 뒷받침할 복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변화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 2000; 장강섭, 1992)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 초반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이는 당시 일련의 가족 변동 현상-이혼과 만혼, 비혼의 증가, 출산율 하락 등을 일종의 한국 사회의 ‘위기’로 상정하고,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강희경, 2005: pp. 156-157)으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첫 번째, 이성애 중심 규범에 따라 가정을 건강/비건강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두 번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며 정상가족을 특권화했으며, 세 번째, 그 결과 전형적인 한국 가족중심주의를 강화(강희경, 2005; 송혜림·성미애·진미정·이승미, 2005; 안병철, 2009)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족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들을 새로운 사회의 구조적 변동 및 개인의식의 진전과 맞물린 재구조화 현상(김혜영, 2008; 이재경, 2004) 혹은 필연적인 이행(Giddens, 1982/1983)으로 인식하고, 사회 전반의 제도적·인식론적 전환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적·질적 차원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담론이 가족 다양성 담론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 가부장제의 문제점, 인구학적 위기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동, 노동환경의 변화 등 여러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전형 가족들을 인식(김혜영, 2008; 박승희, 2006; 임인숙, 1999)하며, 가족 구조와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지표들을 제시해왔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결혼, 가족, 출산 등을 둘러싼 근대적 규범과 이성애 대 동성애, 핵가족(정상) 대 비핵가족(비정상) 등 담론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는 대안 개념인 가족 유연성(flexibility)(이재경, 2015)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비전형 가족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20).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비혼모 등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유행처럼 자리 잡은 오늘날, 미디어는 기존의 가족 담론에 포섭되지 않은 비전형 가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가족 유연성 담론에 기반해, 형태상 기존 법적·혈연 기반의 가족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족이 제공하던 친밀성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전형 가족 중 하나인 공동체 가족(community family)¹⁾을 가상의 친족(fictive kin) 이론에 근거해 개념화하고, 국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서사 분석을 통해 미디어 재현 속의 사회정치적인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미디어는 그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반영과 재구성된 담론을 유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라는 점에서 대중의 삶과 언제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왔다. 이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히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최소 단위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동원된 도구이자 이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를 봉합하고 감정적 단결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 자원으로 활용(신수진, 1999; 조혜정, 1985; 황정미, 2014)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도 가족은 주요 연구대상이었고, 관련 연구들은 영상 텍스트에 투사된 가족의 상징 현실(강명구·김수아 서주희, 2008; 김선영, 2009; 김영성, 2015; 김현경, 2017; 양혜승, 2010 등)과 이러한 상징체계가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승미 외, 2006; 이희승, 2008 등)을 탐구해왔다. 이를 종합하면, 대중매체가 재현하는 가족에 대한 연구는 영상의 미학적인 요소에 대한 탐구일뿐만 아니라, 대상의 의미구현 방식의 분석을 통해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정치적인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공동체 가족은 정상가족 규범에서 이탈한 일군의 가족들-이혼·재혼·입양으로 형성된 결합가족, 한부모 가족, 사실혼(동거) 부부, 1인 가구 등- 중 하나의 형태(김승권 외, 2004; 박승희, 2006; 박현선·이미란, 2009 등)로, 가족의 외형과 개념적 다원성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법 제도의 인정과 혈연관계의 유무 등은 공동체 가족을 여타의 사회적 결합들과 비교해 형태와 학술적인 개념상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실천적인

1) 이 연구에서 공동체 가족은 혈연 및 법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지만 개인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서로에게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대안(적) 가족이나 대안 공동체 등 포괄적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가족(주의)에 함축된 사회적·역사적 상징성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중매체 속 공동체 가족에 대한 재현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는 서로를 가족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들의 집합인 가상의 친족(fictive kin)(Galvin, 2006) 개념을 기반으로 (재) 정의한 "공동체 가족(community family)"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차원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진일보한 현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담론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체 가족 연구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삶의 모습의 다양화 속에서 가족의 본질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합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오늘날 공동체 가족은 과거 저항적 사회 운동의 의미 이상으로, 개인화된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현실 문제를 분담하는 실천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현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회학이나 여성학, 인류학 등에서도 단편적으로만 논의된 공동체 가족을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로 확장하는 한편, 논의의 시작점도 기존 연구들과 맥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술 분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논의의 양적인 부족함과 더불어, 공동체 가족을 일상적인 삶의 형태 중 하나이기보다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운동(이동수, 2004) 혹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한적 수단(김영례, 2016; 이진숙, 2015) 등으로만 인식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개인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공동체 이자 자율적인 소규모의 집합으로 공동체 가족에 접근하는 본고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으로, 관련 연구의 부재와 유사 연구들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방법론인 영상 텍스트 분석은 특정 대상이 의미화되는 과정과 그 지배 담론을 확인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이는 커뮤니케이션학의 질적 텍스트 분석의 이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전술했듯 오늘날 공동체 가족은 특정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소수의 저항적인 삶의 형태(송재룡, 2013)를 넘어, 1인 가구의 한계나 주거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김혜경, 2017; 홍승아 외, 2017)으로도 논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화된 사회 구성원들 간 정서적-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 가족이, 주거난, 청년 빈곤, 고령화 등의 문제를 완화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가족의 독점적인 위치 및 영향력과 더불어, 오늘날 가족과 연계된 젠더, 노동, 복지, 돌봄 등 사회 제반 이슈에 대한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인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와 유연성 담론의 등장

한국적 특수성 맥락에서 미디어에 투사된 공동체 가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오랜 시간 설득력을 얻었던 정상가족 담론이 개인주의 및 국가 정책과 맞물려 해체된 과정과 그 원인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시화되면서 논의된 개념으로 ‘가족 다양성’ 혹은 ‘유연성’ 논의를 검토한다.

정상가족(normal family) 혹은 표준가족(standard family) 담론은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무관하게 산업사회의 근대국가 형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는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을 지향하며, 이념적으로 사회진화론 및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지지(권희정, 2015: Cheal, 1991/1999)된다.

한국의 경우, 핵가족을 필두로 하는 정상가족 담론은 식민지 시기 서구의 문화와 전통규범 수호를 내세운 민족주의 세력 간의 경합으로 형성되었다(김경일, 2012). 1960년대에는 계획국가로서 경제발전 정책이 시행(김혜영, 2016)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보수주의가 가족 규범을 통해 구현되면서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요청되는 “담론의 역진화 현상”(김혜경, 2014: p. 107)이 발생했다.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70년대에는 소자녀 중심의 핵가족 규범과 ‘올바른’ 정상가족의 형태를 제도적 강압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가족의 구조 자체를 근대화의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김홍주, 2002, p. 59)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도시화와 여성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산업화와 핵가족화를 서구화로 등치시켜 비판하고, 전통적 효의 상실과 노인 소외를 우려하는 명분적인 대가족론이 부상(김혜경, 2014, pp. 107-109)하기도 했다. 이처럼 외형상 핵가족과 이념상 전통 가족주의가 혼재하는 양상은 사회구조 변동과 개인의식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1980년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진 한국 가족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래 IMF를 거치며 정상가족 해체 혹은 변동의 징후로도 읽히는 혼인 기피와 이혼율 증가, 만혼과 저출산 현상 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김혜경, 2013; 조은, 2008). 이러한 해체의 징후들은 역설적으로 가족주의가 가치판단 기준으로 작동한 결과(이민아, 2013)로, 학술적으로는 1990년대를 근대 정상가족 담론의 쇠퇴가 시작(이재경, 2015)된 전환적 시기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가족 다양성 혹은 유연성 논의는 가족의 형태적·질적 다양성에 주목하며, 기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된 “가족들”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두 개념은 공통적으로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들의 동등한 권리 보장과 주류화(mainstreaming)에 대한 고민(이숙진, 2017)을 담고 있다. 다만, 다양성 담론이 정상가족으로 구분된 이들 이외의 비전형 가족들을 일탈이 아닌 대안으로 설명(임인숙, 1999: p. 25)하는 것에 그쳤다면, “가족 유연성(flexibility)”(이재경, 2015) 담론은 다양성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들-한국 가족의 양극화 속 계층 간 차이에서 기인하는 개별 가족의 다양성(김혜영,

2008; 문소정, 2008)에 주목한다.

특히, 유연성 담론은 결혼, 가족, 출산을 둘러싼 근대적 규범과 노동 대 가족, 이성애 대 동성애, 핵가족(정상) 대 비핵가족(비정상) 등 담론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이재경, 2015: p. 299)하는 것으로, 본고의 공동체 가족의 개념적·실질적 정당성 또한 이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 유연성 개념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닌 과거 지배규범에 의해 배제됐던 탈규범적 가족들을 가족의 범주에 포괄하고, 기존 다양성 담론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개별 가족 간 차이와 그 안의 문제들에 주목한다. 즉, 과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법적 관계 안에서만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면, 최근의 유연성 담론은 형태와 역할에서 지속적인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회 구성체로 가족을 이해하는 관점인 것이다. 이처럼, 가족의 보편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담지한 신념체계(Cheal, 1991/1999: pp. 169-171) 또는 도덕적 함의를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가족관계와 구성체로서의 가족이 상호적으로 변형되는 복잡한 변증법적인 과정을 해명할 수 있게 한다(Collier, Rosaldo & Yanagisaco, 1992: pp. 59-60). 그 결과, 유연성 담론 안에서는 혈연·법적 기반의 관계 외에도 스스로에게 가족의 이름을 부여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본고의 공동체 가족도 가족의 이름을 획득하게 된다.

2) 가상의 친족(fictive kin)으로서 공동체 가족

앞선 논의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가족이 등장하기까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과정을 시대적 변화와 함께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인 공동체 가족의 정의와 범주, 특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가족 관련 국내 연구들의 동향을 종합해 용어의 재개념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구에서 다양한 연대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가상의 친족(fictive kin)” 개념을 토대로 공동체 가족을 새롭게 정의한다.

(1) 국내 선행연구와 공동체 가족 재개념화의 필요성

국내 공동체 가족 연구들은 양적인 부족함과 용어의 중복 채택 경향, 합의된 정의의 부재 속에서, 연구자 개인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비)혈연 관계의 개인들이 형성한 공동체’를 공동체 가족, 대안(적) 가족 혹은 대안 공동체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²⁾ 이들 연구는 새로운 삶의 모습 혹은

2) 학문적 엄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규모 마을이나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 연구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용어와 접근 방식의

은 현실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공동체(성)에 주목하며, 공동체 가족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질적 사례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전자의 이론적 연구들은 소위 '대안 공동체'의 '대안'과 '공동체'가 갖는 철학적 함의를 관련 사상들을 근거로 평가하며,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이 아닌 과거 획일적이며 비판적인 사회 운동과는 구분되는, 즉, 인간의 새로운 행위와 사고, 관계를 추구한 결과물로 대안 공동체에 접근(박주원, 2008)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 공동체 문제(community question)로 압축되는 지속 및 실재 가능성(plausibility)과 바람직성(desirability)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추상적인 이념, 지역, 전위적 실천, 더 나아가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현대 사회 공동체의 가능성(김미영, 2015)을 탐색한다. 후자는 공동체적 개체성(communal individuality)의 아니키즘을 전제로 탈현대사회의 실험적 대안 공동체의 정치적 질서의 재편 가능성(이동수, 2004)을 탐구하는 한편, 2차 근대성과 개인화 이론을 토대로 오늘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제도적 개인화와 공동체성이 공존하는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로 제안(심영희, 2011)하기도 한다.

후자의 연구들은 현대사회 문제 해결의 대안이자 상징적 가치 실천의 결과물으로써 실제 국내의 사례들에 질적으로 접근한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가족 해체와 위기 현상으로 대표되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이진숙, 2015), 핵가족이 직면한 자녀 양육 문제와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류경희·김순옥, 2000; 오미영·이진영, 2006), 사회적 연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돌봄 필요성(김영례, 2016)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공동체 가족을 제안한다. 이 외에도 근대성에서 비롯된 현대사회의 위기(이동일, 2015),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차윤정, 2016) 및 지배적 젠더질서의 폐해(전희경, 2014) 등 거시적인 구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자 실천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은 공동체(성)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실천 혹은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공동체 가족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가족'이 아닌 포괄적인 '공동체(성)'으로 시작하여 특정 지역과 마을을 기점으로 조직적으로 형성된 대안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때 구성원들은 동일한 정치 사상과 목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삶의 규범을 공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관계의 형태(type of relationship)보다는 공간적 경계(spatial boundaries), 공동의 유대와 상호작용보다는 공동의 물리적 공간의 점유(이동일, 2015: pp. 100-102)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이 연

붙일지 자체가 역설적으로 공동체 가족 재개념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다루도록 한다.

구는 한국 가족(주의)에 함축된 사회적·역사적 상징성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술적 자원을 토대로 미디어 속 공동체 가족의 재현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 및 관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과거 연구들은 공동체 가족을 현존하는 사회 집단들과 동일선상 혹은 연장선의 관계로 해석하거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인식하기보다 구분되는 삶의 형태로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개념화는 생략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본고는 한국 가족 이데올로기의 맥락 속에서 그 특수성을 공유하고, 이에 함축된 상징적 역할 및 기능과의 비교 속에서 연구대상에 접근하는바 가족 연구 내 위치하며, 이를 고려할 때 선행 논의들을 공동체 가족 개념화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물론, 이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게 대안 공동체를 “혈연이나 법률관계가 아닌 공유된 일상과 친밀성을 토대로 형성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정의한 국내 연구(이진숙, 2015: pp. 50-52)가 존재한다. 그러나 단일 논문이라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논의 구성이 제한될 수 있고, 오히려 연구자 개인의 관점에 의존한 현상 해석의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했을 때, 국내 연구들의 합의된 용어와 정의의 부재, 이론적 배경의 불일치는 본고에 적합한 공동체 가족의 재개념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이 연구는 서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가상의 친족 개념을 활용해 공동체 가족을 정의하고, 그 범주와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2)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정의와 특징

가상의 친족(fictive kin)은 사회 관습과 제도적 인정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애정, 기능 및 공유된 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식(Galvin, 2006; Minow, 1998)하는 관점이다. 특히,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기존 정상가족의 허구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스스로에게 가족의 이름을 부여하는(self-ascribed) 개인들의 유연한 네트워크의 성격이 강하다. 학술적으로 가상의 친족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연대들은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다양한 집단에서 기록(Braithwaite et al., 2010: p. 391)되어 왔으며, 오늘날 혈연·법적 결합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 연대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등 현재 학계에서는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초기 관련 연구들은 가상의 친족을 “친족의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수행하는 비친족 네트워크(Stack, 1974)” 혹은 “비친족이지만 상상적 유대 속에서 마치 서로를 실제 가족처럼(as if) 생각하는 집단(Ball, 1972)” 등 추상적인 유사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후 실증

연구들을 통해 가상의 친족의 공통적인 특징들과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혈연이나 법적 결합 상태를 전제하지 않는 개인들 간 의도적으로 형성된 그룹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스스로에게 가족의 이름을 부여하는(self-ascribed) 개인들의 집합(Galvin, 2006: p. 6)” 혹은 “실제 가족의 결핍을 대체하거나 감정적·물질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구성된 간 상호 동의 및 합의에 따라 구성되고 유지되는 자발적 친족 집단(Nelson, 2014: pp.205-206)”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의 친족 범주에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거나 근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유지하며 가족의 소속감을 느끼는 자율적인 연대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색인종-흑인(Chatters et al., 1994; Johnson, 1999; Stack, 1974), 성소수자(Dewaele et al., 2011; Muraco, 2006; Weston, 1991), 이민자(Ebaugh & Curry, 2000; Kim, 2009), 여성(Rubinstein et al., 1991), 노인(Rae, 1992), 기타 사회 취약계층(Dodson & Zincavage, 2007; Gubrium & Buckholdt, 1982; Heslin, Hamilton, Singzon, Smith, & Anderson, 2011; McCarthy, Hagan, & Martin, 2002)의 네트워크부터, 포괄적으로는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이웃과 친구, 사회활동이나 취미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Watters, 2003)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술한 연구들에 따르면, 가상의 친족은 혈연 혹은 법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며 개별 구성원의 필요와 자유 의지, 상호 호혜성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추구하지만 개인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자유로운 해체와 재조합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은 공동의 정체성과 그룹 내 소속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기능상으로 전통 가족이 제공하던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보완 혹은 대체하기도 하며, 이와 동시에 집단의 일원으로서 개인에게 특정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와 범주, 특징의 포괄성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친족의 실체와 유형, 혈연 중심의 규범적 가족 및 일반적인 교우 관계와의 경계(Nelson, 2013)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실제로 모든 친밀한 친족과 개인들 간 관계가 “가족”으로 명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Voorpostel, 2013: p. 817)은, 공동체 가족의 정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주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유형화 논의와 사례 분석에 근거해, 가상의 친족 구성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장한 연구(Nelson, 2013)가 존재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가상의 친족은 혈연 및 법적 가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이들이 공동체 구성원과 관련되지 않는 “상황적 친족(situational kin)”, 특정한 문화 관습과 종교적 실천에서 기인하는 “의례적 친족(ritual kin)”, 개인 간 자발적 협상과 선택에 의한 “의도적 친족(intentional kin)”의 세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에 근거해 이 연구는 공동체 가족의 유형을 다양한 가상의 친족 하위 차원 중 개인 간 자발적 협상과 선택에 의해 형성된 “의도적 친족(intentional kin)”으로 한정한다.

의도적 친족은 특정한 선행 조건과 환경을 공유하지 않는 개인들이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공동체로, 가족의 외적 형태와 상징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비단 물질적인 조건만이 아닌 순수한 친밀성에 기반해 연대를 지속하며, 여타의 가상의 친족들과는 달리 공동체 형성의 배경에 강제성이나 우연성, 무작위성이 배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 가족주의의 맥락에서 형태적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가족만의 본질적인 특수성을 유지하는 결합으로 공동체 가족을 이해하는 본고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여타의 친족 형태들이 문화 관습과 종교적 실천 등의 선행 조건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도적 친족은 공통의 배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대의 형태는 현재 국내에서 학술적 혹은 현실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는 공동체 가족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위 논의들을 종합해, 이 연구는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을 “혈연 혹은 법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상호 호혜적인 개인들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전통 가족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자발적 개인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연대의 형태와 속성은 “의도적 친족”으로 한정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3) TV 다큐멘터리의 리얼리티와 국내 미디어 가족 재현의 정치성

이 연구는 국내 공동체 가족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해 텔레비전 다큐멘터를 분석의 매개체로 선정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는 다양한 형식적 원리와 미학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현실과 유사한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수용자들은 재구성된 현실을 통해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대중들의 집합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이고 담론적 차원의 매(개)체로 기능한다(박진우, 2010). 이때 대중에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극대화되는 장르가 바로 TV 리얼리티(Fiske & Hartley, 1978/1997)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특정 서사 전략 및 영상 제작 방식을 통해 리얼리즘을 극대화하는 장르로, 제작자는 역사 세계와 직결된 쟁점이나 문제, 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로 수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큐멘터를 선택(Nichols, 2001/2005)한다. 이는 다시 말해, 다큐멘터리 속 재현된 세계는 실제 현실과 유비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텔레비전이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Fiske, 2011/2017)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TV 다큐멘터리는 특정 담론의 사회적 구성 과정을 확인하고 기저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포착하는 최적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가족 이미지를 재생산(Skill, Wallace, & Cassata, 1990)하면서도, 여러 형태의 비전형 가족들을 동시에 재현해왔다(Moore, 1992).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족 내 인종, 세대, 젠더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모습은 문화적 변동과 긴밀히 연동되는 대중매체의 사회적 특성(Tyus, 2015: pp. 346-348)을 분명히 드러낸다.

국내 미디어 가족 재현 연구들은 주로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오늘날 텍스트 기저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폐쇄적인 가족 중심성을 비판하면서, 가족의 형태적 일탈이나 서사 전략 차원에서 가부장제의 균열 및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족과 혈연으로 연결(강명구 외, 2008: p. 48)되어 있고, 드라마 설정과 플롯 상에서 등장인물의 비중과 갈등 해결의 역할 또한 남편과 그 가족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김수아 외, 2007: p. 164). 한편, 1990년대 이후 지상파 드라마가 재현하는 혼외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가정 내 혼외관계의 위기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수호를 통해 극복(김지영·김동규, 2017)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경향 속에서도 소수의 드라마, 예를 들어, 남성 전업주부 드라마 <불량주부>에서는 전통 위계질서의 전복 속에서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제시(최현주, 2008)하고, SBS <하늘이시여>와 KBS2 <굿바이솔로>에서는 혈연·법적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발적 공동체를 제안(조항제·홍찬이·강승화·문소영, 2007)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2000년대 이후 일부 불륜 드라마에서는 기존 가족과의 단절을 통해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김영성, 2015)하는 서사를 보여주기도 했다. 종합하면,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주의의 해체 속에서도 여전히 보존해야 할 최후의 가치로서 혈연·법적 기반의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중매체의 모순된 담론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속 가족 재현의 보수성과 균열의 가능성은 본고의 분석 매체인 다큐멘터리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싱글대디와 미혼모를 동시에 등장시킨 KBS1 <다큐 공감>의 '아이가 행복입니다'에서는, 정상가족 신화의 균열 속에서도 부모의 성 역할 및 가족의 정상성을 기준으로 비대칭적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었다(김환희·고병진, 2018).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텍스트 프레임과 등장인물들 모두 한부모 가족과 정상가족을 동일한 선상에 두며 결핍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그러나 싱글대디가 어머니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반면 미혼모는 어머니의 역할도 완수하지 못하고, 결손가족과 정상가족의 대비 속에서 고정된 성 역할을 재생산하는 등 균열과 모순의 지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공동체 가족' 재현 연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는 영화 텍

스트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 개인의 관심과 더불어, 두 매체의 제작 환경과 주 수용자층의 차이-영화감독의 작가주의 아래 개인의 실험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진보적인 환경과 공중파의 보수적인 성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한국 영화가 정상가족의 위기로 지칭된 현상들을 봉합 혹은 전환하기 위해 ‘가족의 재구성’ 전략을 사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거 영상 텍스트들은 부계 중심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사회적 응징, 반성, 가정으로의 귀환이나 개인의 몰락으로 일단락했던 것(이충민, 2011: pp. 46-47)과는 달리, 최근에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자율화와 주체성 획득에 방점을 두고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는 모계 중심의 유사 가족을 형성(강성률, 2009; 김소연, 2012; 황인옥, 2010)하는 등 변화가 포착되는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 가족주의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가족 재현 연구는 다각도에서 탐구되어왔고, 다수의 연구들은 시대적 흐름 혹은 매체의 성격에 따라 재생산과 균열이라는 복합적인 가족 담론의 양상을 밝혀왔다. 특히, 최근에는 학계를 포함해 사회 각 영역에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혈연과 법적 관계를 벗어난 비전형 가족의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다. 싱글맘 혹은 10대 청소년 부모가 등장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혼 남녀가 재결합 상대를 찾기 위해 소개팅을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일회성 부자·모녀·남매가 되어 소위 ‘신가족관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경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 담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자, 현시점에서 공동체 가족 재현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는 리얼리티의 특성상, 특정 이슈에 대한 시대별 담론들을 확인하고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텍스트로 기능해왔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가족주의의 맥락에서 오늘날 TV 다큐멘터리가 공동체 가족을 재현하는 양상과 구성된 담론의 사회정치적 함의를 탐구한다.

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앞선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공중파 4사(EBS 포함)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8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록과 등장인물들의 특징 등 전반적인 내용, 수집 방법 및 수집 시기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Table 1. Program Information

Program name	Broadcasting date	Title	Main charaters	Topic
	2013.09.10.	Separately and together, a single-roofed family	2030 Generation	The story of young people living as community families in Seoul and Jeju Island to solve urban housing problems and youth problems
KBS1 Documentary 'Gong-gam'	2014.11.15.	No Men Allowed! Go to a house where men are not allowed to enter	Generation 20's Women	The story of women in their 20s living in rental apartments run by Seoul government
	2016.09.11.	Let's live together	2030 Generation	The story of young people living as community families in Seoul and Incheon to solve urban housing difficulties, poverty, and loneliness
KBS1 Human Theater	2020.07.06. ~ 2020.07.10.	An Unstoppable Youth	2030 Generation	The story of young people who return to Jeju and live with community families and rural cooperatives
	2019.11.15.	Do you want to live together? - Chungnam, Seocheon-gun, Hansan-myeon	2030 Generation	The story of young people who left the city and went to the countryside to find their 'dreams' and 'jobs'
KBS2 Documentary 3 days	2020.06.05.	It's okay to fail - Mokpo 'Okay Town'	2030 Generation	The story of young people who were hurt in the city and went down to the countryside to comfort each other and live together
SBS Documentary Special	2019.07.14.	An Intermittent Family	Generation 2030's Women	The story of about 50 young people who live by creating intermittent families to replace family functions
EBS Documentary Prime	2015.09.09.	'Uri' We, Living together	2030 Generation	The story of people 'Uri dong-ne Saram-deul' forming and living in a community family in an era where the spirit of community has disappeared

한국 사회에서 전통 가족의 형태적·기능적 변화와 관련한 논의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이를 뒷받침해온 일련의 정책들, 개인의 의식 성장이라는 복합적인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확산된 신자유주의와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성, 이와 맞물린 가족 해체와 변동의 징후들이 가시화(김혜경, 2013; 조은, 2008)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설명하는 다양성 담론(김혜영, 2008; 박승희, 2006) 혹은 가족 유연성 담론(이재경, 2015)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실제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원의 변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관련 연구와 통계들은 한국의 전형적 가족들은 앞으로 감소하는 반면,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홍승아·최인화·최진희·유은경, 2016: pp. 13-21)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여러 미디어나 학술적 논의를 통해 1인 가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동체 가족 혹은 공동 주거가 제안(김혜경, 2017;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 2017)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후반부터 대안적 삶의 형태와 공동체 가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는 사실은, 본고의 연구대상 수집 시기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위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공중과 4사에서 정규 편성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정의 및 유형화에 근거한 자료 수집을 실시했다. 일차적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행한 <방송영상산업백서(2017)>를 통해 4사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기존 혈연 혹은 법적 형태에서 벗어난 공동체적 삶의 형태들-마을·지역 공동체와 귀농 마을, 입양 위탁 가정, 해외 공동 주거 등-을 다룬 프로그램들을 모두 수집했다. 예를 들어, 1차 수집에서는 특정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종교 단체, 노인들의 마을공동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로당이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다룬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그 결과, KBS1의 대표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인 <다큐 공감>에서는 25편, <사람과 사람들>에서는 18편, <인간극장>에서는 21편, <동행>에서는 3편을, 종합 다큐멘터리인 <시사기획 창>과 <KBS 스페셜>, <미래기획 2030>, <월(목)요기획> 등에서는 총 11편이 선정됐으며, KBS2 <다큐멘터리 3일>에서는 총 10편이 수집됐다. 한편, MBC의 <휴먼다큐 사랑>과 <다큐 스페셜>, <다큐 플렉스>에서는 각각 4편과 7편, 1편을, SBS의 <SBS 스페셜>과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특집 다큐멘터리>에서는 총 15편을, EBS의 <다큐 프라임>과 <다큐 시선>에서는 총 5편을 일차적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수집된 프로그램들을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정의한 '가상적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2차 분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본고가 개념화한 공동체 가족에는 부합하지만, 해외 사례이거나 주요 서사 이외에 일회적·단편적으로만 등장한 프로그램, 제작진이 모집한 출연진들이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실험형 프로그램 등은 제외됐다. 이에 최종 연구대상 다큐멘터리로 KBS1의 <다큐 공감>과 <인간극장>에서 4편, KBS2의 <다큐 3일>에서 2편, SBS와 EBS에서 각 한 편으로 총 8편이 선정되었다.³⁾

3) 연구대상 중 KBS1 <인간극장>의 '거침없이 청춘(2020년 방영)'과 KBS2 <다큐 3일>에서 방영된 두 편의 다큐멘터리(2019, 2020년 방영)는 외형상 청년들의 마을공동체 혹은 협동조합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 공동체는 초창기 소수의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정의에 근거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다큐멘터리의 핵심 등장인물들은 모두 2030의 청년 세대4)들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KBS1 다큐공감 ‘남성 출입 금지! 금남의 집을 가다(2014)’를 제외하고 성별과 무관하게 공동주거를 실천하고 있었다. 각 다큐멘터리의 성격과 제작 의도에 따라 공동체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실제 혈연·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계기, 생활방식, 목표, 지향하는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때 일부 다큐멘터리들은 이들의 삶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과거 농촌 공동체 혹은 이제는 사라진 마을공동체와의 비교 속에서 오늘날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속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종합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목적·주거 및 생활비 절감, 정서적 만족, 귀촌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한 이들로, 대다수 공동 주거를 통해 처음 관계를 형성하게 된 인물들이다. 예를 들어,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의 청년들은 서울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며 경제적·정서적 이유를 근거로 공동 주거를 선택했고, ‘우리, 같이 살래요?(2019)’에서는 귀촌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는 여타의 유사 공동체들과는 달리, 문화 관습이나 종교적 실천 등 특정 사회문화적 배경이 공동체 가족 구성의 선행 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구성원들은 필요에 따라 공동체 참여를 통해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동체로의 진입과 이탈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살아요(2016)’와 ‘거침없이 청춘(2020)’에는 본격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이전 이를 미리 체험해보는 이들이 등장하며,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체에서의 이탈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할 때, 위 다큐멘터리 속 등장인물들의 삶은 본고에서 개념화한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분석방법

이 연구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공동체 가족을 탐구하기 위해 영상 텍스트 내 등장인

인원으로 시작했으며 스스로 의식주를 함께 하는 ‘식구(食口)’로 규정한다는 점, 더 나아가 이론적 배경에서 정의한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4) SBS 스페셜 ‘간헐적 가족의 공동체 가족’은혜의 구성원은 총 50여 명으로, 여기에는 부부와 그들의 미취학 혹은 10대 자녀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연령대와 삶의 형태(배우자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한 건물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전체 등장인물의 연령대는 미취학 아동부터 40대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에서 핵심적으로 조명하는 이들은 제 4부족인 20~30대 미혼여성 공동체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의 삶과 구성원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한다.

물과 서사 전개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서사구조 분석을 실시, 연구대상 다큐멘터리들이 구현하는 사회정치적 담론과 그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은 특정한 서사에 기반하며, 게임쇼나 운동경기 등 고도로 구조화된 영상 텍스트에서도 서사(적 요소)의 침투(Kozloff, 1987/1992: p. 69)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상, 서사의 기본 요소 이외에도 이를 전달하는 기술적인 방식 및 효과 등이 텍스트의 주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 텍스트의 서사구조 분석은 텍스트의 구성 요소 및 표면상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배열과 구현 방식이 지니는 심층적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서사물은 내용 또는 사건들(행위, 사고happenings) 및 존재하는 것들(인물, 배경 등)이라 불리는 이야기(story)와, 내용이 전달되는 수단인 담화(discourse)로 구성(Chatman, 1978/1990)되며, 이야기는 다시 연쇄적으로 배열된 사건들의 결합인 통합체와 이를 수행하는 등장인물과 이들이 위치한 배경인 계열체로 구분된다. 즉, 이야기가 “누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라는 형식적 내용의 문제라면, 담화는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의 표현 차원의 질문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서사물은 텍스트 속 사건과 존재물들의 연쇄적인 조직체이자 자기 조정과 변형을 통해 독립적인 완결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각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일종의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Chatman, 1978/1990: pp. 20-24).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텍스트 내 사건들과 일정한 인물 및 배경을 포괄하는 존재물들(existents)의 결합으로, 텔레비전 이야기들은 보통 시청자의 흥미를 통합체적인 축에서 계열체적인 축으로, 다시 말해 사건들의 흐름으로부터 존재물들, 즉, 인물과 배경의 등장과 변화로 옮겨 놓는다(Kozloff, 1987/1992: p. 82). 서사 속 인물들은 추상적으로 심층 서사 차원에 존재하는 공간-배경 안에 존재하며, 특정 공간은 의도된 분위기와 상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의 계열체 분석에서는 등장인물의 유형과 관계,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장소 등이 지닌 각각의 개성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관된 모습들에 주목한다.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인 통합체는 단순히 사건들의 직선적인 연쇄가 아닌, 상호연관적이고 구속적이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속성에 따라 인과성(casuality)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인 휴먼 다큐멘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특이한 측면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삶을 진솔하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극적인 재미를 가미하여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감동의 정서와 오락성을 구현하기 위해 극적인 구성과 연출이 상대적으로 다수 개입(김균·전규찬, 2003: p. 69)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통합체 분석

에서는 특정 서사의 플롯이 지닌 인과성을 고려해, 개별 텍스트 속의 공통된 혹은 특징적인 이야기 구조와 핵심 주제들을 종합하고, 전체 서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언급한다.

한편, 이야기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구성하기 위한 표현 방법인 ‘담화’는 리얼리티 구현을 중시하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서의 담화는 언어학 차원에서 서사를 분석할 때 텍스트 내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총체적인 수단-즉, 서술방식의 의미가 강하다. 이에 서사구조 분석에서 담화는 텍스트 내 선택과 배제, 전경화와 배경화, 주제화와 비주제화의 문제이자, 어떠한 과정 유형(process type)과 범주가 사건을 표현하는데 이용되었는가의 질문과 긴밀히 연결된다. 더 나아가, 제작자가 이야기 전달을 위해 선택한 표현 방법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사회적 동기와 이념, 지배 관계에 대한 물음(Fairclough, 1995/2004: p. 158)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담화적 요소 중 다큐멘터리 장르의 특성상, 영상물의 객관성과 서사적 흥미를 위해 화면 안팎의 서술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통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서술자는 ‘카메라’로 통칭되지만, 장르에 따라 육체와 분리된 목소리만으로 인격을 부여받아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레이터가 대리자로 등장하기도 하며, 이들의 위치, 즉, 시점(point of view)은 이야기의 객관성과 신뢰, 설득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Kozloff, 1987/1992: pp. 85-96). 이에 이 연구는 텍스트의 서술자-내레이터의 유형에 주목해 분석을 진행하고, 필요시 텍스트 내 공간 구성과 미장센, 카메라 기법, 조명, 음향 등이 포함된 ‘영상 표현방식’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서사 구조 분석을 종합해, 다큐멘터리 구성 요소들 간 상호작용이 구현하는 공동체 가족 담론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해 고찰한다.

4. 연구결과

1) 서사의 이야기 분석

(1) 계열체 분석

① 현대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청년 세대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이 지닌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집단의 ‘소수자성’이다. 이는 가상의 친족 구성원들이 사회 주류에서 배제 혹은 소외되었거나, 그들 스스로가 외집단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서 기인한다(Allen, Blieszner, & Roberto,

2011; Chatters, Taylor, & Jayakody, 1994; Nelson, 2014). 특정 사회에 속한 개인이 가상의 친족을 구성하는 주원인은 정상가족의 결손이나 부재, 이들과의 물질적·심리적 거리감 (Stack, 1974) 등이며, 최근에는 인간 생애주기의 확장과 혈연·법적 가족의 정상성에 대한 의문, 실질적 가족 구조의 변동 등 거시적인 사회 이동이 이들 존재의 정당성을 뒷받침(Johnson, 1999: pp. 373-374)하고 있다.

연구대상 다큐멘터리 속 가족 구성원들도 앞서 언급한 가상의 친족 구성원들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여덟 편의 프로그램에는 도시 혹은 농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로 현대사회의 문제들로 대표되는 도시에서의 생활고와 주택난, 취업과 실업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대안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인물들이다. 가상의 친족으로서 청년 공동체 가족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각자가 느끼는 소속감과 정체성의 정도는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개인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호명하며 공동체의 삶을 영위한다.

예를 들어,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의 대학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은 생활비 절약과 관계 형성에서 오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표하며, 거주 한 달째인 지금은 ‘얼굴도 고향도 다르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다고 말한다.⁵⁾ ‘간헐적 가족(2018)’의 미혼 여성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안일을 나누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이야기한다. ‘우리, 같이 살아요(2016)’와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에 등장하는 인천 검암동 공동주거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 기존의 혈연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가 선사하는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들만의 ‘가족’을 형성한다.⁶⁾ 이처럼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은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면서도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고, 물질적·정서적 자원을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나 공동체 가족 전반에서 포착된 일관된 특징 속에서도 다큐멘터리의 방영 시기에 따라 구성원들이 강조하는 가치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2016년까지 방영된 네 편의 다큐멘터리-KBS1 <다큐공감>의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

5) 등장인물 중 한 명은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는 다른 구성원에게 옷을 빌려주며, “자매들 보면 언니 옷을 동생이 입고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외동이라서 전혀 그런 이야기에 공감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진짜 언니랑 동생들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옷) 나눠 입어요.”라고 이야기한다. 구성원 중 한 명의 생일파티 장면에서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됐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6) 인천 검암동 공동주거 구성원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얻은 것이 경제적 이점 이상으로 관계와 사람임을 강조하며, 서로가 일정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가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우지 않으며 “규칙 없는 규칙” 속에서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2013)', '남성 출입 금지! 금남의 집을 가다(2014)', '우리, 같이 살아요(2016)'와 EBS <다큐 프라임>의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의 등장인물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며, 현실에서 직면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 주거를 선택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의 반도 못 갚고 집세와 생활비 모두를 부담(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의 옥인동 청년들)'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도시에서 홀로 자취를 하면 실제 손에 쥌 수 없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우리, 같이 살아요의 이현동 쓰리룸)'고 한탄한다. 이들에게 공동체 가족이란 청년 1인 가구의 불안정한 현실을 의지하고 정서적 결핍을 해소해주는, 즉, '사람을 얻고 관계 맺기 연습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실험의 공간(우리 같이 살아요와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의 인천 검암동 커뮤니티'인 것이다.

한편,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방영된 다큐멘터리-KBS1 <인간극장>의 '거침없이 청춘(2020)', KBS2 <다큐 3일>의 '우리, 같이 살래요?(2019)'와 '실패해도 괜찮아(2020)', SBS <다큐스페셜>의 '간헐적 가족(2019)'의 청년들은 주로 교외에 거주하며, 동일한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공동체 가족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공동체 생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은 부수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2019년 이후 다큐멘터리 속 청년들에게 공동체 가족은 '서로 교류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자발적인 선택(간헐적 가족의 은혜 공동체)'이며,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실험장(우리, 같이 살래요?의 삶, 기술학교 청년들)'이다. 실제 등장인물들은 변호사, 교사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도시의 풍요로움보다는 최소한의 의식주 속에서 자기 계발을 추구(실패해도 괜찮아의 목포 청년들과 거침없이 청춘의 제주 청년들)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연구대상 다큐멘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앞서 정의한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서로를 가족의 언어로 호명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필요에 따라 결집하는 느슨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 같이 살아요(2016)'와 '거침없이 청춘(2020)'의 공동체들은 정식 구성원이 되기 이전 이를 일정 기간 체험해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간헐적 가족(2019)'의 외부 공동체와의 교류는 또 다른 공동체로의 파생으로 이어진다.

구성원 간 결합은 혈연, 출신 지역, 선행된 교제 여부와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회문화적 지위나 배경 등도 참여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공동체의 시작은 가까운 지인들일 수 있지만,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동을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들에게 새로운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관, 현대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신자유주의와 공동체 가치의 실종에서 비롯된 세대 문제, 새로운 공간에서의 자아

실현과 도전이라는 목표 등의 공유 여부이다. 주목할 점은, 다큐멘터리의 방영 시기를 기준으로 등장인물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공동체 구성의 목적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0년 초중반의 다큐멘터리 속 청년들은 1인 가구로서 혹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로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간다. 그러나 2010년 후반 다큐멘터리의 청년들에게 공동체 가족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을 넘어,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과 연대해 이를 실현해갈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가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은 본래 속한 공동체의 결함이나 사회 자본의 결핍, 경제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인종, 세대, 젠더,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라 소수자 이외에도 누구나 참여하고 형성할 수 있는 집단(Allen et al., 2011; Johnson, 2000; Taylor, Chatters, Woodward, & Brown, 2013; Voorpostel, 2013)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② 청년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주변 인물들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을 다룬 다큐멘터리에는 공동체 구성원 이외에도 공동체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해체된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기성세대들로, 서사에 따라 주요 등장인물들과는 비교 혹은 조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 ‘우리, 같이 살아요(2016)’와 ‘간헐적 가족(2019)’에는 과거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노인 세대나 도시 문명의 피해자이자 신빈곤층인 1인 가구 청년들이 등장한다. 전통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과거 공동체의 이야기가 진지한 삶의 고민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날 열악한 1인 가구가 탄생하게 된 원인으로 공동체 해체를 지적한다(‘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의 인천 팽이부리마을 주민들). 한편, 1인 가구 청년들은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시원 생활을 선택하지만, 저임금과 높은 주거비의 악순환 속에서 타인과의 교류는 단절되었다고 고백한다(‘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과 ‘간헐적 가족’의 1인 가구 청년들). 또한, 이들은 서울에서의 가혹한 삶과 공동체 가족이 주는 안온함을 이야기하며,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우리, 같이 살아요’의 아현동 쓰리룸).

위의 등장인물들이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비를 통해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나머지 다큐멘터리에는 공동체 가족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성세대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로 청년들의 부모 혹은 동네 주민들로, 주인공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상적인 새로운 삶의 형태로서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같이 살래요?(2019)’와 ‘실패해도 괜찮아(2020)’의 마을 주민들은 청년들의 공간을 수시로 방문하여 먹거리를 챙겨주고, “모두 자식 같은 마음에서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서 함께 자리 잡고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거침없이 청춘(2020)’에는 과거 자녀의 귀촌을 반대했지만, 현재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등장한다. 이 외에도 “물에서 온 외지 청년들을 경계했지만, 현재는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며, 과거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주민들이 다수 출연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큐멘터리 속 주변 인물들이 청년 공동체 가족과의 대비 혹은 조화를 통해 이들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2010년대 초중반의 다큐멘터리에는 해체된 공동체의 구성원들 혹은 현대 도시 문명의 피해자로서 1인 가구 청년이 등장한다면, 최근에는 공동체 가족을 ‘불가피한 차선책’이 아닌 ‘가능성의 도전’으로 이야기하는 기성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물 설정은 이후 서술할 텍스트가 구현하는 공동체 가족의 기능 및 가치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③ 현대사회의 대안이자 가능성 실현의 공간으로서 공동 주거와 공동체

다큐멘터리의 청년들은 오늘날 2030 세대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주거난, 취업난, 도시에서의 생활고 등을 해결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 주거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청년 공동체는 1인 가구 혹은 해체된 공동체와의 비교 속에서 묘사되거나, 기성세대 및 농촌 공동체 등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설정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혹은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도시 청년들’과는 다른 삶을 실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강화한다.

2016년까지 방영된 네 편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공동체의 기능과 가치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에서는 1인 가구와의 비교 속에서 오늘날 도시 주거난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공동체 가족이 등장한다. 청년들은 도시 생활의 고달픔, 감당하기 어려운 집세, 정서적 외로움 등을 1인 가구의 단점으로 지적하며, 공동체 가족이 경제적 이점과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을 선사했다고 답한다. 다큐멘터리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과 ‘우리, 같이 살아요(2016)’에서도 공동체 가족과 공동 주거는, 오늘날 가족의 본래적 기능의 상실 속에서 물질적·정서적 빈곤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도시 청년들이 유일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이들은 공동 주거

가 있었기에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여유가 생기면서, 상상했던 것들, 꿈만 꾸던 활동들에 대해 도전할 수 있었다(‘우리, 같이 살아요’의 아현동 쓰리룸)”고 회상한다.

한편, 2019년 이후 다큐멘터리의 등장인물들은 공동 주거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얻기보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집중한다. 청년들에게 지방에서의 공동 주거 혹은 공동체 생활은 ‘부모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곳’이자, ‘안정적인 직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일 하나하나에서 쾌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거침없이 청춘’의 제주 청년들)’으로 묘사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수익이나 가시적인 결과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이를 통한 자아실현(‘실패해도 괜찮아’의 목포 청년들)이다. ‘우리, 같이 살래요?(2019)’의 청년들에게도 지방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취업과 경쟁에 시달렸던 도시와는 달리,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다큐멘터리에서 목격되는 공동체 가족의 기능과 가치는 가상의 친족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상의 친족이 제공하는 핵심 자원으로 혈연 및 법적 가족의 기능 수행과 사회 자본의 형성 두 가지를 꼽는다. 가상의 친족은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감을 가진 이들에게는 심리적 지지를 포함하는 정서적 애착과 경제적인 지원, 물리적 보호를 통해 형성되는 소속감, 존중과 자존감 등 규범적인 가족 내에서 주로 경험하던 경제적·정서적 자원을 제공한다(Allen et al., 2011; Braithwaite et al., 2010; McCarthy et al., 2002; Nelson, 2013 등).

더 나아가, 가상의 친족은 구성원 간 축적된 믿음을 토대로 결속한다는 점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Ebaugh & Curry, 2000)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과 성격을 지닌다. 첫 번째는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위를 현실화(Stack, 1974)함으로써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Kim, 2009)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개별 집단의 개성을 통한 타 집단과의 구별 짓기 및 내집단 보호의 기능(McCarthy et al., 2002)이다. 연구대상 프로그램 속 공동체들도 소속된 개인들에게 사회 자본을 제공하며, 이때 그 기능은 개인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배경, 목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주거난, 취업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의 친족을 형성한 2010년대 초반 공동체들은 주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사회 자본을 의미한다. 한편, 2010년대 후반 이후 공동체 가족들이 형성하는 사회 자본은 도시에서의 자발적 이탈을 통한 자아실현과 타 집단과의 차별의 성격이 강하다.

종합하면, 다큐멘터리 속 청년 공동체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서로에게 혈연 및 법적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 자본의 형성을 통해 정서적·물리적 이점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때, 방영

시기에 따라 각 공동체가 강조하는 가치와 그 상징성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했다. 2019년 이전 다큐멘터리 속 공동 주거와 공동체 가족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의미가 강하다면, 그 이후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경제적 기능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 공간으로서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 자본의 성격도 전자의 프로그램들이 주류 사회로의 편입의 기능이 강하다면, 후자의 공동체에서는 여타 집단과의 차별성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차이는 전술한 주변 인물 분석과도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앞서 1인 가구와 해체된 공동체를 통해 청년 공동체의 가치를 드러낸 다큐멘터리들에서는 상반된 계열체 요소들을 배치하여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가족을 의미화했다. 이 가운데 과거 공동체 혹은 전통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의 중요성과 회복의 당위성은 자연스레 강조된다. 한편, 청년들과 기성세대 혹은 농촌 공동체가 연대하는 다큐멘터리에서는 계열체 간 조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아실현과 도전의 공간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상징성이 두드러졌다.

(2) 통합체 분석: 문제 해결책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갈등 축소형 서사구조 다큐멘터리 속 청년 공동체 가족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공동체-비 공동체의 이분법적 비교를 통한 이야기 구성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공동체와 조화되는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을 강조하여 이들 집단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다큐멘터리들은 현대사회의 정상가족 및 공동체 해체의 결과로 설명되는 1인 가구, 고독사, 청년 실업과 주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청년들의 공동체에 주목한다. 이는 문제 상황을 설명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구조로, 개별 프로그램들이 원인을 규명하고 제시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큐멘터리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삶을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등장인물들의 인터뷰 혹은 내레이션으로 짧게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한 후, 분위기를 전환해 세 유형의 공동체 가족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제시한다. 해체된 공동체인 아현동 청년들과 인천 검암동 커뮤니티가 등장하는 '우리, 같이 살아요(2016)', 서울에 거주하는 두 그룹의 공동체 가족과 1인 가구를 동시에 보여주는 '간헐적 가족(2019)'의 서사 전개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한편,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은 여타의 프로그램들이 문제의 해결책인 공동체 가족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현상 소개와 원인 규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고독사와 1인 가구 등 문제의 원인으로 전통 공동체와 가족의 해체를 꼽으며, 다양

한 통계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공동체 가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후자의 다큐멘터리들은 공동체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와 동시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단편적으로 언급하거나 생략하는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성 출입 금지! 금남의 집을 가다(2014)’에서는 공동 주거를 하는 등장인물들의 개별 서사가 연속적으로 제시된다. 이때 등장인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은 같거나 문제제기 없이 전개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는 청년들’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통합된다. 제주 청년들의 귀농 공동체를 다룬 ‘거침없이 청춘(2020)’의 서사도 등장인물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공동체가 개인에게 선사하는 이점과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도시 생활에서 경험한 좌절이나 차별, 세대 문제 등은 부차적인 서사로만 제공된다.

이와 같은 서사구조의 차이는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휴먼 다큐멘터리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갈등과 극적인 전개에 기반한 기승전결의 구조로 전달한다면,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비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 집중한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들은 장르의 성격상 모두 휴먼 다큐멘터리에 가깝다는 점에서,⁷⁾ 서사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 의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결과인 ‘공동체 가족의 가치 자체를 강조하는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EBS의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을 제외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축소 혹은 생략되었다. 이러한 갈등 축소형 서사구조는 프로그램이 강조하고자 하는 해결방안의 중요성과 가치, 긍정적인 측면 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다.

2) 서사의 담화 분석

(1) 다큐멘터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지적 시점의 내레이터와 등장인물의 활용

연구대상 다큐멘터리는 별도의 진행자 없이 프로그램 속 내레이터가 서사의 전반을 이끌고 있다. 특히, 각 프로그램들은 텍스트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장면에 대한 전지적 시점의

7) <방송영상산업백서(2017)>는 KBS1,2의 세 프로그램은 휴먼 다큐멘터리로, EBS의 <다큐프라임>과 SBS의 <다큐스페셜>은 일반(general) 다큐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다큐란,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제작 의도에 따라 각 회차의 장르와 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선정된 회차들이 KBS1,2의 휴먼 다큐멘터리들과 동일선상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내레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한 예로,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과 ‘우리, 같이 살아요(2016)’에는 공동체 가족 구성원이 작중 화자로 등장해 극의 일부 혹은 전체의 이야기를 진행한다. 내레이션은 도시에서의 삶과 공동 주거를 선택하게 된 계기, 이에 대한 소감과 개인적인 경험 등이 주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내레이터들은 ‘우리’ 혹은 ‘저희’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다른 구성원을 지칭할 때에는 친근한 비격식체를 자주 사용한다.⁸⁾

한편, 일부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인 서사 구성과 텍스트의 분위기에 적합한 내레이터를 등장시켜 주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통계 자료와 전문지식이 자주 등장하는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에는 전문 방송인 허수경이 출연해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실패해도 괜찮아(2020)’에는 공동체 청년들이 자주 듣는 노래의 주인공인 가수 윤상이 내레이터로 등장한다. 그는 청년들이 자신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에 대한 감상을 언급하고, 이러한 구성은 자연스럽게 내레이터가 등장인물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레이션과 연결되기도 한다.⁹⁾ 이 외의 프로그램에서는 휴먼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활용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내레이터로 등장하여,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청년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주목할 점은, 텍스트 속 내레이터들이 단순히 장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사실과 해석이 공존하는 내레이션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자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동주거’라는 공동체 가족의 상징성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한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에서는 도시의 1인 가구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 후, 이를 자연스럽게 공동체 가족의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시킨다.¹⁰⁾ 다큐멘터리

8) KBS 다큐멘터리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에는 어두운 도시와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토로하는 20대 여성의 내레이션이 서두에 삽입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둡고 복잡한 서울의 모습을 배경으로) 혼자 시작한 서울 생활, 예상은 있었지만 정말 녹록치 않다. 캄캄한 방 안에 쓰러지듯 몸을 누이면 들리는 느릿한 초침 소리에 잠이 들고, 아침엔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집이 아니라 방에 살던 그 시간. 하지만 이제 서울에도 가족이 생겼고 우리 집이 생겼다.” 한편, ‘우리, 같이 살아요(2016)’에서는 공동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내레이터로 등장해 극 전체를 이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내레이터가 자신임을 밝히며, “저 차중호도 3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기도와 명상 시간입니다. (중략) 제 명상이 그녀들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듯,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런 생활이 자연스럽습니다.”라며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9) 목포 청년들의 취미 밴드인 ‘오합지졸’이 윤상의 노래인 ‘한 걸음 더’에 맞춰 노래를 부를 때, 내레이터인 윤상은 “희한한 악기를 들고 나타난 청년들, 뭔가 한창 바빠 보입니다. (중략) 누구 노래인지 참 좋은데요? 참 지루할 틈 없는 청년들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활동을 격려한다. 또한, 윤상의 노래와 그의 내레이션이 맞물리며, 다음과 같은 대사로 극이 마무리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략) 목포에서도 때론 지치고, 때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루만 더 견디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미루지 않는 청년들. 실패해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10)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통계 그래프 및 수치와 함께, “홀로 남은 건 노인들만은 아닙니다. 도시

‘우리, 같이 살래요?’(2019)’에서도 인구 급감으로 쇠퇴하는 시골 마을의 재건을 위한 해결책으로 청년 공동체를 제시한다.¹¹⁾

이처럼 다큐멘터리들은 프로그램 장르와 이미지, 등장인물들의 세대나 상징성에 부합하는 내레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서사의 전달력을 높인다. 특히, 등장인물이 내레이터로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직접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문제와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전달하는 구조는, 서사에 진실성과 사실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해석이 공존하는 전지적 시점의 내레이션은 각 텍스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청년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2) 이분법적 공간 구성을 통한 공동체 가족에 대한 의미 부여

여덟 편의 다큐멘터리들은 텍스트 내 이분법적 공간 구성을 통해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때 텍스트가 제시하는 이분법적 공간 구성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공동체와 비공동체 간 대비를 통한 주제 의식의 강화로, 여기에는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 ‘남성 출입 금지! 금남의 집을 가다(2014)’, ‘우리, 같이 살아요(2016)’, ‘간헐적 가족(2019)’, ‘실패해도 괜찮아(2020)’ 등의 다큐멘터리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과 ‘우리, 같이 살아요’의 공간은 삭막하고 비정한 도시와, 이로부터 등장인물들을 보호하고 청년들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인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등장인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이웃 간의 정이 남아있는 진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묘사되고, 이러한 상징성은 서울의 삭막함을 대표하는 이미지들—빠르게 지나가는 지하철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고층 건물과 낡은 저택이 공존하는 풍경, 어두운 고시원의 전경 등—과 교차되면서 강화된다. 이는 목포의 공동체 생활에서 서울로 돌아간 과거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는 ‘실패해도 괜찮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¹²⁾ 한편, ‘간헐적 가족’에는 흡사 대가족을 연상시키는 공동체 가족과

에도 혼자 남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약 556만 명, 네 명 중 한 명꼴로 혼자 삽니다. (중략)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굳이 왜,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라는 내레이션을 제시하고, 이후 장면은 인천 검암동 공동체 가족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11) 프로그램 전에는 지방의 경제적 쇠락이라는 객관적인 현실과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지구책으로써 청년 공동체를 강조하는 주관적인 해석이 공존한다. “어떤 사람들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시골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산면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시골 마을의 작은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 청년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송미가 제작한 영상은 서울 밤의 삭막한 지하철 풍경으로 시작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고시원에서 10여 년을 1인 가구로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가 함께 제시된다. 이러한 서사에서 공간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부모가 되고 이모, 삼촌, 조카가 되는’ 공동주택과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조차 불편한’ 도시의 고시원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공동체와 이제는 해체된 과거의 공동체를 비교하는 공간 구성 유형으로, 이에는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 ‘우리, 같이 살래요?(2019)’, ‘거침없이 청춘(2020)’이 포함된다. 다큐멘터리 ‘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해체된 공동체와 공동 주거의 공간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공장의 매연이 뒤덮은 도시 풍경과 무연고 사망자의 분향실, 팽이부리마을의 허전한 골목길은 밝고 화목한 인천 검암동 청년 공동체의 모습과 극적으로 대비되며, 오늘날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과 회복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강조된다. 한편, 여타의 다큐멘터리들이 공간 간의 이분법적 구분과 대비로 주제 의식을 강화했다면, ‘우리, 같이 살래요’와 ‘거침없이 청춘’에서는 몰락한 과거 공동체 속에서 이를 재건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전통 공동체 혹은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정리하면, 위 다큐멘터리들은 등장인물들의 삶의 터전인 공동체 공간과 1인 가구로 대표되는 비공동체 혹은 이미 몰락한 과거의 공동체를 교차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공간 구성은 서사가 지적하는 문제 상황-오늘날 공동체 정신의 실종과 기능의 약화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현대사회의 청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3) 청년 공동체 가족 다큐멘터리의 사회정치적 함의

이 연구는 한국 가족 담론의 유연성 맥락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인 ‘공동체 가족 (community family)’에 대한 미디어 재현 양상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일종의 연속적인 변화 선상에 위치한 담론 구성체로 가족을 인식하는 ‘가상의 친족(fictive kin)’ 개념에 근거해 공동체 가족을 정의하고, 2010년 이후 방영된 다큐멘터리 여덟 편의 서사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다큐멘터리 텍스트에 재현된 공동체 가족은 주로 2030 세대의 청년들이었으

한 등장인물의 모습과 도시의 전경, 목포 공동체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제시된다. “서울에서 송미가 목포 펜찰아 마을 친구들에게, 동자와 이촌역 사이 3분, 지나가는 한강의 풍경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1년 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던 목포의 바닷가가 생각나. (중략) 그 용감하고 이뽀하고 힘겹고 찬란한 시간의 일부를 조금만 돌려줄 수 있을까?”

며, 이들은 특정 가치관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독립적인 개인들의 수평적인 연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때 다큐멘터리들은 주인공인 청년들과 비공동체 혹은 해체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문제 해결의 결과인 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서사 구조, 다큐멘터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지적 시점의 내레이터와 등장인물의 활용 및 이분법적 공간의 설정 등을 통해 공동체 가족의 가치-현대사회의 청년 문제의 대안이자 가능성 실현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앞선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공동체 가족을 재현한 국내 다큐멘터리들의 사회정치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책임으로 소급되는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으로서 공동체 가족

연구대상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2030 청년 세대들은 도시-서울에서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찾기 위해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을 선택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위기는 도시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들로 생활고, 취업난 등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정서적 외로움은 이들이 지닌 문제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 주거 혹은 공동체 가족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의 의미를 넘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연대를 통해 자아실현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가족에 대한 재현 양상의 차이 혹은 상징적 의미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2010년 이후 설득력을 얻었던 거시적인 청년 담론 및 2030 세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제적-정서적 위기에 대응해 공동체 가족을 형성한다는 서사는 패배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성장을 강조했던 2016년 이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자발적으로 공동 주거를 형성한다는 서사는 개인의 직업적 성공보다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2019년 이후 텍스트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한국 청년 담론의 변화는 국내 산업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긴밀히 연결된다. 오늘날 청년 세대들은 경제적 호황기(1980-90년대)에 태어나 대중 소비가 확산되는 시기에 유소년기를 보냈지만, 금융위기 이후 기회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큰 경제불황기에 청년기를 맞이한 이들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가족 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커졌고 계층별 라이프 스타일의 분화는 심화되면서, 오늘날 청년 세대들은 계층화된 기회 구조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김영미, 2016). 결국, 이러한 기회 불평등의 지속은 '88만원 세대', 'N포 세대' 등의 용어를 낳으며, 한국 사회의 청년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관적인 세대(정성조, 2019)라는 자조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후, 2030 세대 담론은 2010년 초중반을 거치며 오늘날 사회 전체를 비판하는 ‘헬조선, 경제적 계급론을 전면에 내세운 ‘수저론’으로 확대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조어는 초기 한국 사회 전반의 기회 구조나 불평등 문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점차 기성세대에 의해서 청년들의 문제로만 소급되어 논의되기 시작(김선기, 2016; p. 58)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담론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 주요 사회문화적 이슈들과 연결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 빈곤 문제와 세대 간 경제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88만원 세대’의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2007년 이후, 2010년 출판계에서는 청년들의 고통을 미화하고 청춘과 열정, 희망과 노력이라는 키워드로 이를 극복하길 종용하는 힐링 수사가 한동안 득세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성세대의 메시지는 2013년경부터, 문화적으로는 청년 비정규직의 현실을 묘사한 드라마가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정치적으로는 당시 정권의 청년 일자리 문제 및 최저시급 논란 등과 중첩되면서 전형적인 ‘청년 착취’ 서사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이광석·윤자형, 2018).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자조적이고 패배적인 서사는 기득권의 특권의식과 정치적 부패,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과 세습의 재생산에 대한 사회구조적 비판과 연결되며 ‘헬조선’ 담론(김애린 외, 2016), 혹은 경제로부터의 배제, 거주 장소의 박탈, 희망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난민’이 된 청년(김상민, 2016)들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물리적·정서적으로 한국 사회 밖에 위치하게 되는 ‘탈조선’ 담론 등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는 청년들이 자기 발전 과정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헌신하는 주체성의 고양을 통해, 자기 생존에 대한 독자적 책임자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김수미, 2016: p. 169). 실제로 2016년까지 방영된 다큐멘터리 속 등장인물들도 위의 용어들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들을 사회의 피해자로 위치시키거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노력만을 강조하는 현 사회를 비판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가족은 청년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로 형상화된다.

한편, 위의 용어들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2016년을 기점으로 청년 세대를 둘러싼 상반된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중문화계에서는 2030 청년 세대들을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해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차별과 혐오를 주도하는 가해자로도 읽어내는, 즉, 다면적인 청년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도(이광석·윤자형, 2018)되었다. 한 축에서는 여전히 사회경제적 능력을 최우선의 가치로 강조하거나 자기 계발을 통한 청년 개인의 자구책 마련을 독려했고, 또 다른 축에서는 기성세대의 경제 관념과 성공 지표에서 벗어나 ‘소비’와 ‘자기만족’을 쫓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로 설명하였다. 이는 2017년 이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올로(YOLO)족’이 등장(김중인·김미경·이은선, 2021)한 가운데, 경제적 능력과 학벌 등이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있어 여전히 주류 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최우선 조건임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대중의 공감을 얻은 현상이 뒷받침한다(백진주·백선기,

2018). 더 나아가, 미디어 속 청년들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추구와 연결되면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개인화되고, 창업이나 부업, 여러 직업적인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이를 극복하는 서사로 구성(김훈순 정사강, 2020)되었다.

최근에는 주거 공간을 자기 계발의 공간으로 생각하며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과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MZ 세대(황지혜, 2021)가 청년들의 주류로 자리 잡고,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현실 속에서 공유 주택과 취미 위주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권성진, 2022)이 잇따르면서, 공동체 혹은 공동체적 삶은 청년 문화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다. 2019년 이후 다큐멘터리 속 청년들도 부조리한 현실의 생계 문제나 정서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의 대안적인 삶이나 유사한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 가족을 선택한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다큐멘터리 재현 양상의 차이는 사회 변화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고 재구성하는 대중매체의 대표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텍스트의 표면적인 담론의 차이 속에서도 여덟 편의 공동체 가족 다큐멘터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 의식이 기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 서사에는 청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별 문제-1인 가구, 청년 실업, 주거비, 고독사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2016년대까지 방영된 다큐멘터리 속 청년들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시대의 피해자로 위치시키고, 이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주변 인물들도 결국 구조의 피해자로서 청년들의 패배주의적 서사에 힘을 실어준다. 일부 청년들의 공동체는 현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 아닌, 불안정한 삶을 최소한의 의식주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노력과 열정으로 한계를 극복하길 요구하는 사회의 '자기 계발' 서사는 자조의 대상일 뿐이다.¹³⁾ 2019년 이후 다큐멘터리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 공동체 가족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서사는 유효하다. 텍스트 속 청년들은 자기 계발 서사를 체화하여 '거침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서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도전에 성공한 이들의 배경에는 '자본'이 존재하고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이들은 자구책을 마련해 버티고 있다.¹⁴⁾

13) '우리, 같이 살아요(2016)'의 아현동 청년 공동체가 해체되는 날, 등장인물 중 한 명은 청년에게 가혹한 도시에서의 삶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집값이 잘못된 건데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는 왜 포기해?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이런 거."

14) 한 예로, '간헐적 가족(2019)'에 등장하는 은혜 공동체 구성원 중 한 명은 공동체의 탄생 배경을 이야기하며 "(공동주택에서) 정말 같이 살고 싶어서 신청한 여러 연합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의 재개발이나 과거 공동체의 해체는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며, 저렴한 공공주택은 낮은 보급률과 높은 경쟁률을 지원조차 어렵다. 그나마 최선의 대안으로 고시원을 선택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청년들에게 고시원은 '정상적인 집'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 자리할 수 없는 청년 세대의 사회적 탈구를 체현하는 상징적 공간(정민우·이나영, 2010; p. 170)일 뿐이다.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방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해보기도 하지만, 실상 여기서 성공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이다. 오히려 개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거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도전하는 서사는, 텍스트 이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과 중첩되면서 막연한 이상주의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사에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청년들은 선택적인 사실만을 재현하는 미디어에 반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에 순응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등의 양가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송동욱·이기형, 2017).

이처럼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논리가 사회 전 구조에 침투해있는 현실적 맥락에서 텍스트는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사회문제나 청년들의 도전을 개인의 역량과 의지로 감당해야 하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개인화된 시안으로 대폭 축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가 '헬조선' 현상에 주목하며 '청년 문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과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이나 제도적 해결책의 모색은 매우 더디다는 것(김애린 외, 2016; p. 107)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중매체에 묘사된 공동체 가족과 공동 주거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일말의 가능성에 매달릴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사회에게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도피처로 기능하게 된다. 물론, 연구대상 다큐멘터리들의 서사와 재현을 비판적으로만 보기에선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가족 담론의 맥락에서만 해석할 때, 청년들의 공동체는 기존의 전형적인 결합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이자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가치의 범주를 확장하는 유의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이성애 중심의 법적 결합 이외의 대안적인 삶이 제안되는 오늘날, 공동체 가족은 사회와 개인 차원 모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일 수 있다. 즉,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만 해석하기에는 이에 주체적으로 도전하는 개인의 모습도 분명히 포착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성공사례들은 극히 일부이며, 한국 사회에 공고히 자리 잡은

집도 다 세 들어서 살고 있고... 함께 살아서 정말로 잘 누리고, 정말 더 행복해질 사람들은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할 단계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사실상 신청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쉬워한다.

경쟁 패러다임과 이를 체화한 청년들의 자기 계발 담론은 경쟁상황에서의 '생존' 여부를 오로지 이를 수행하는 주체-청년들의 합리적 규율과 통치 가능성에 종속시킨다. 즉, 청년들에게 현대 사회의 서바이벌 상황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자 규범(김홍중, 2015)이라는 점에서, 구조에 대한 비판이 소거된 문제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축소하고 이들의 노력을 '아름다운 청년'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속 청년 공동체 가족 담론을 '다양성'의 서사로만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2) 정상가족 담론과의 비교 속에서 가치를 획득하는 공동체 가족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은 정상가족의 형태적·기능적 결함에 의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결함모델(deficit comparison model)(Ganong & Coleman, 1994)과, 혈연 및 법적 가족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Weston, 1991)하거나, 기존 가족과의 자연스러운 결합과 확장(Braithwaite et al., 2010)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대안/보완모델(alternative/supplemental model)의 상반된 담론에 근거한다. 후자의 관점은 공동체 가족을 전통 가족의 결핍에서 비롯된 부산물이 아닌, 그 자체로 완전하며 혈연·법적 가족과 동등한 담론 구성체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가상(fictive)의 친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가에 질문을 던지며, 역설적으로 언어는 혈연·법적 친족의 자연스러움과 안정된 현실성, 필수적 특징 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Nelson, 2014: p. 216). 이는 가상의 친족은 그 용어의 출발점에서부터 정상가족을 상징하고, 공동체 가족 관계의 진정성도 기존 가족과의 비교 속에서만 부여될 수밖에 없음(Weston, 1991)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상가족의 불완전함을 근거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혈연·법적 가족과 대등한 완전한 집단으로 위치시키는 경향은, 실제 가상의 친족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Heslin et al., 2011: p. 1172; Johnson, 1999; Voorpostel, 2013). 한편, 공동체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를 잠재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그들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상적 친족의 존재가 기존 가족의 결함을 토대로 정당화 혹은 합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Braithwaite et al., 2010).

연구대상 다큐멘터리들이 재현하는 청년들은 오늘날 사회문제에 위기를 느끼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일종의 대안으로 공동체 가족을 선택하거나, 도시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꿈에 도전하기 위해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이들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 구성된 자발적인 결합으로 구성원 간 정서적·물질적 자원을 공유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표면상 자율적인 선택과 필요에 의해 구성된 대안적 공동체이지만, 이때의 대안은 실상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한 결과라는데 있다.

전술했듯, 2016년을 기점으로 다큐멘터리 방영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 차원의 해결책으로서 공동체 가족 재현은 텍스트 전반에서 확인된다. 이때, 해체된 공동체의 차선책으로서 청년 공동체의 정체성은 공동체-비 공동체의 이분법적 비교를 통한 서사와 공간 구성을 통해 강조된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한 현대사회의 공동체 가족은 1970년대 마을 공동체와 유사한 관계망을 가지며(‘우리 We, 함께 산다는 것(2015)’),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들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대안적 가족 형태의 전형으로 묘사(‘따로 또 같이, 한지붕 가족(2013)’과 ‘간헐적 가족(2019)’된다. 몰락한 농촌 공동체 속에서 이를 재건하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우리, 같이 살래요(2019)’, ‘거침없이 청년(2020)’ 등)을 통해서도, 오늘날 공동체(성)와 대안적 가족의 필요성은 서사 전반에서 확인된다.

즉, 등장인물들이 공동체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공동체의 해체 혹은 당대의 세대 문제들이 존재하며, 다큐멘터리는 자조적이고 비판적인 청년의 시각에서 혹은 자기 계발의 서사를 토대로 개인 차원의 해결책만을 제시할 뿐 거시적인 논의는 축소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공동체와의 비교 속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등장인물들의 인터뷰와 서사 전략은, 청년 공동체를 규범적 가족과 대등한 독립적인 집단이기보다 결합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정상가족의 대체제 혹은 보완제’로 기능하게 한다. 결국, 텍스트가 재현한 청년 공동체는 구성원의 특징과 집단의 자율성 등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문제 상황에서 비롯된 장단기적인 봉합책에 그치는 것이다.

물론, 청년들의 공동체 가족은 가족 담론의 불확실성 혹은 유연성 담론과 맥을 함께하며, 가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형태의 전형성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공동체 가족의 이상적인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욕구에서 시작된 이들 공동체는 물리적·정서적 충족 이상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상화되는바, 청년 공동체 가족은 혈연 중심의 위계적 관계를 강조하는 한국 가족주의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즉, 국내 다큐멘터리 속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은 기존 가족의 정상성을 보장했던 이분법적인 경계들을 일부 해체 시킨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가족이 청년들에게 목적이기보다 수단으로 묘사되며, 그 가치도 여전히 정상가족과의 비교 속에서 부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담론에서 완전히 이탈한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공동체 가족 다큐멘터리의 서사는 가

족 불확실성 및 유연성 담론에 기반하지만, 기존 정상가족과의 비교 속에서 공동체의 타당성과 가치가 부여되는 재현 전략은 한계로 볼 수 있다.

(3)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희석하는 낭만화된 공동체 가족

국내 다큐멘터리에 재현된 청년 공동체는 오늘날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때 텍스트는 문제 해결자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구조적인 결함은 축소하고, 개인들의 노력의 결실인 ‘공동체 가족’ 자체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공동체 가족의 이상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주변 인물들과 이분법적 공간 배치, 현실적인 문제는 삭제하고 연대와 공존을 실천하는 낭만적인 공동체로서 청년 연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낭만화된 공동체 가족 담론은 전술한 개인에게 사회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담론과도 맞닿아있다.

여덟 편의 다큐멘터리는 공통적으로 인물에 해당하는 계열체 요소부터 담화 기법까지 이분법적 요소들을 동시에 배치하는 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 공동체와 가족 해체가 가져온 문제적 상황은 강조되면서도, 청년들의 공동체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결과로 묘사된다. 특히,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했던 등장인물들이나 1인 가구, 과거 공동체의 일원들이 등장하는 구성은 서사의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청년들의 선택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행보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생략된 서사 구조는 이상적인 해결책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텍스트에는 공동체 가족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모습만이 담길 뿐, 내부 갈등이나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 등은 생략되거나 은유로만 등장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비단 청년 공동체의 이야기뿐만이 아닌 개별 청년들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영상의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는 실제 텍스트가 보여주는 사례들이 결코 가볍지 않을지라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비판하기보다 낙관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한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위기를 벗어나 이를 타개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부여하기도 한다(김훈순 정사강, 2020; p.99).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드러나야 하는 기저의 문제들은 희석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이마저도 한 개인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가족의 상징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묘사된다. 결국, 청년 공동체 가족 다큐멘터리들은 이들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보다는, 청년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집중함으로써 미디어가 이상화한 ‘낭만적인 청춘’을 대리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재로 기능하게 된다.

5. 결론 및 함의 : 시대의 필요에 따라 재생산되는 미디어 속 청년 공동체 가족 담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목격되는 가족 구조의 변동과 실질적인 현상들은 가족의 규범성과 정상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편, 타인과의 연대를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이 연구는 가족의 정상성 해체와 유연성 담론의 등장,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시화되는 현시점에서, 비전형 가족들 중 하나인 공동체 가족(community family)을 가상의 친족(fictive kin)에 근거해 개념화하고 2010년 이후 방영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서사와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연구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가족 담론의 방향을 예측하게 하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가족 개념에 대한 재정의와 입법 시도가 목격되는 현 상황에서 가족 관련 정책에 직간접적인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사 분석에 따르면, 공동체 가족을 다룬 국내 다큐멘터리 여덟 편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2030 세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도시에서의 생활고, 취업난, 주거난 등 당면한 세대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과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들의 수평적인 연대로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호명하고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해체와 재조합으로 연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 속에서 다큐멘터리는 계열체 간의 대비 혹은 조화, 문제의 원인 탐색과 분석,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야기 구조, 공동체 가족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가치만을 강조하는 담화의 구성 등 다양한 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세대 문제는 청년 개인의 책임과 도전의 몫이 되고, 이들의 공동체 가족은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차선책으로만 기능하게 된다. 또한, 여러 문제 속에서도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는 청년 서사의 재현은, 2030 세대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성장'의 한 과정으로 치부하며 그 심각성을 희석함으로써 기존의 낭만적인 청년 연대의 이미지를 고착화한다. 여기에, 다큐멘터리 속 공동체 가족은 규범적 가족과 대등한 독립적인 집단이기보다, 기존 공동체의 정상성을 복원하고 이를 보조하는 등 결합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정상가족의 대체제 혹은 보완제'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처럼 혈연·법적 가족과의 비교를 통해 가치를 획득하는 공동체 가족은 가상의 친족 개념에서는 담론 상 독립적인 공동체로 해석하기 어렵다. 결국, 국내 다큐멘터리는 각 구성원의 특징이나 관계 형성 방식 등 표면적으로 유연성 담론을 지지하는 연대를 등장시켰지만, 실상 이들의 기능과 의미부여 방식은 전통

가족의 규범성에 기대어 재현되는 등 상징적·실천적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왜 한국의 다큐멘터리 속 공동체 가족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에 근거한 해석을 덧붙일 수 있다. 첫 번째, 공동체 가족의 정의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양적인 부족함 속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인 가상의 친족 개념을 활용해 본고의 목적에 맞게 공동체 가족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확정해 연구대상을 선정했다. 전술했듯,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은 돌봄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의 관계부터 남녀 성 소수자 간의 결합까지 넓은 범주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연구자에 따라 공동체 가족의 범주를 확정하는 방식과 기준도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분석 방향 및 기준의 엄밀성을 도모하는 한편, 오늘날 가족 다양성 논의나 정책적 제안에서 주로 언급되는 공동체 가족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의도적 친족에 한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다시 말해, 공동체 가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의를 채택한다면, 청년 공동체 가족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공동체 가족의 성격과 보수적인 미디어 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 공동체 가족은 비전형 가족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이론과 현실 모두에서 담론의 최전선에 위치한 가장 개방적인 형태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가족의 모습이기보다, 여전히 특수한 환경과 배경을 공유하는 이들이 구성하는 삶의 방식일 수 있다. 실제로 미디어가 재현하는 한국 공동체 가족은 단순히 가족 담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특정 시기 혹은 세대 문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복잡한 담론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미디어의 성격상, 대중에게 익숙한 가족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공동체 가족의 성격과 청년 세대의 사회적 상징성·진취성, 진보성,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가상의 친족 연대가 기성세대보다 청년의 이미지에 더 부합할 것이라는 해석에서 오는 의도적 배제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며 ‘가족 구성권’ 확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박하얀, 2020)되었다는 것은, 보수적인 미디어의 유의미한 균열 지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 물론, 가상 결혼이나 가상 가족, 이혼 남녀의 만남과 싱글맘의 육아 등이 리얼리티 장르에서 가볍게 때로는 선정적인 소재로 소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가족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결합들이 가시화되고 논의의 장(場)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를 상업적인 논지로만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한편, 이 연구는 공동체 가족을 탐구하기 위해 재현의 매개체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선정했다. 그러나 각 매체의 형식과 장르에 따라 재현 양상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에서도 공동체 가족 혹은 비전형 가족의 등장을 목격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장르를 다양화해, 프로그램 간 공동체 가족 재현의 차이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미디어 연구로 영상물을 통해 공동체 가족의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이들의 담론이 사회문제와 얽혀있는 방식과 그 의미를 해석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연구는 텍스트 내외부를 둘러싼 의미 구성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담론 간 경합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동체 가족 관련 현장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은 연구자 개인의 아쉬움이자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관련 연구에서는 실제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의 민속지학적 탐구를 통해, 공동체 가족 연구의 범주를 확장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까지 이끌 수 있길 기대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가 재현하는 공동체 가족은 단순히 가족 담론과만 연결된 것이 아닌, 특정 세대가 특정 시기에 경험해야 했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닿아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공동체 가족 자체가 지닌 가능성에 집중하기보다, 청년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 결과인 공동체 가족을 이상적인 청춘의 전형으로만 제시하고 이를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소급시키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는 비단 청년들의 공동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소위 '정상성'의 틀에서 벗어난 비전형 가족들의 재현 이면에 존재하는 공통된 한계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담론들을 면밀히 해석해 나갈 때, 공동체 가족을 포함한 그 외의 재현물들의 본래적 상징성에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llen, K. R., Blieszner, R., & Roberto, K. A. (2011). Perspectives on extended family and fictive kin in the later years: Strategies and meanings of kin reinterpret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2*(9), 1156-1177.
- An, B. C. (2009). A study on the healthy family act: Focusing on its enactment background, criticisms and responses. *Society and Theory, 15*, 331-349.
- Baek, J. J., & Baek, S. K. (2018). Societal phenomenon of 'single-person household', media representations and cultural implications : A semiotic and discourse study on 〈Drinking Solo〉 of tv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0), 65-77.
- Ball, D. W. (1972). The "family" as a sociological problem: Conceptualization of the taken-for-granted as prologue to social problems analysis. *Social Problems, 19*(3), 295-307.
- Braithwaite, D. O., Bach, B. W., Baxter, L. A., DiVerniero, R., Hammonds, J. R., Hosek, A. M., ... & Wolf, B. M. (2010). Constructing family: A typology of voluntary ki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3), 388-407.
- Byeon, H. S., Won, Y. A., Kim, S. K., Kim, Y. R., & Kim, M. J. (2000). Recent family dissolution and welfare measures (research report no. 240-3-1).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atman, S. B. (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hatters, L. M., Taylor, R. J., & Jayakody, R. (1994). Fictive kinship relations in black extended famili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5*(3), 297-312.
- Cha, Y. J. (2016). An alternative imagination to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 With a focus on the Haeyeo community at Amnam park. *Cogito, 79*, 292-320.
- Cheal, D. (1991).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ho, H. J. (1985). Social change and familism in Korea.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17*, 81-98.
- Cho, H. J., Hong, C. Y., Kang, S. H., & Moon, S. Y. (2007). Two changes of family representation in Korean contemporary television melodrama : 〈Haneul-i-si-yeo〉 and 〈Good-bye solo〉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1*(6), 574-617.
- Choi, H. J. (2008). A study on the reverse of the gender role in TV drama - A case study of 〈A Poor Homemaker〉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2*(4), 401-438.
- Cho, U. (2008). The contested terrain of class and gender: Landscapes of Korean family politics in

- globalizatio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4(2), 5-37.
- Collier, J., Rosaldo, M. Z., & Yanagisako, S. (1992). Is there a family? New anthropological views. In B. Thorne & M. Yalom (Eds.), *Rethinking the family: Some feminist questions* (pp. 43-62).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Dewaele, A., Cox, N., Van den Berghe, W., & Vincke, J. (2011). Families of choice? Exploring the supportive networks of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312-331.
- Dodson, L., & Zinbarg, R. M. (2007). "It's like a family" caring labor, exploitation, and race in nursing homes. *Gender & Society*, 21(6), 905-928.
- Ebaugh, H. R., & Curry, M. (2000). Fictive kin as social capital in new immigrant communities. *Sociological Perspectives*, 43(2), 189-209.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1st ed.). London: Bloomsbury Academic.
- Fiske, J. (2011). *Television culture*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 Fiske, J., & Hartley, J. (1978). *Reading television*. London: Routledge.
- Galvin, K. M. (2006). Diversity's impact on defining the family. In L. H. Turner & R. West (Eds.), *The family communication sourcebook* (pp. 3-19).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Ganong, L. H., &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Giddens, A. (1982). *Sociology, a brief but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Macmillan.
- Gubrium, J. F., & Buckholdt, D. R. (1982). Fictive family: Everyday usage, analytic, and human service considerations. *American Anthropologist*, 84(4), 878-885.
- Heslin, K. C., Hamilton, A. B., Singzon, T. K., Smith, J. L., & Anderson, N. L. R. (2011). Alternative families in recovery: Fictive kin relationships among residents of sober living home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1(4), 477-488.
- Hong, S. A., Choi, I. H., Choi, J. H., & Yoo, E. K. (2016). Study on the oper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to discuss family type diversity (research report no. 2016-5).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Hong, S. A., Seong, M. J., Choi, J. H., Kim, J. W., & Kim, S. J. (2017). A study on family policy responses to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research report no. 2017-19).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Hwang, I. W. (2010). Sexuality and family as seen through movie text analysis. *Local Autonomy Research*,

14, 109-136.

- Hwang, J. H. (2021. 8. 8). *There is also a cinema room and a craft room, looking into the new mangrove*. JoongAng Daily Newspaper. Retrieved 08/08/21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4123390?cloc=joongang-section-moredigitalfirst>
- Hwang, J. M. (2014). Family, nation, social reproduction. H. K. Kim et al. (Eds.), *Sociology of families and intimacy* (pp. 30-52). Seoul: Dasan Books.
- Jang, K. S. (1992). Nuclear family ideology and the welfare state - The political economics of family support. *Economy and society, 15*, 173-204.
- Jeong, S. J. (2019). The critical reconstruction of the 'youth generation' discourse: Focusing on gender and sexuality. *Economy and Society, 123*, 12-39.
- Johnson, C. L. (1999). Fictive kin among oldest old African Americans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6), S368-S375.
- Johnson, C. L. (2000). Perspective on American kinship in the lat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623-639.
- Jun, H. K. (2014). Rethinking the underlying premise of local community: A case study about the experiences of single/queer feminists in Mapo-gu and Eunpyung-gu, Seoul, Korea. *Issues in Feminism, 14*(1), 75-112.
- Jung, M. W., & Lee, N. Y. (2011). Questioning the meaning of normative 'home': Youth experience living in gosiw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2), 130-175.
- Kang, H. K. (2005). Unhealthiness of the 'healthy home' discourse. *Economy and Society, 65*, 155-178.
- Kang, M. K., Kim, S. A., & Suh, J. H. (2008). Representing family and family relations in East Asian television dramas : Historical variations among Confucian cultur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6), 25-56.
- Kang, S. Y. (2009). Changes in family system in Korean movi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86*, 514-533.
- Kim, A. R., Im, H. B., Chang, H. S., Park, J. H., Ki, S. Y., Jeong, Y. J., ... & Lee, K. H. (2016). On analyzing the Hell-Chosun phenomenon in contemporary South Korea : Through a textual analysis of media represent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0*, 40-114.
- Kim, E. C. (2009). 'Mama's family' fictive kinship and undocumented immigrant restaurant workers. *Ethnography, 10*(4), 497-513.
- Kim, H. H., & Goh, B. J. (2018). Disintegration of discourse in single-parent family and its persuasion in the

- modified myth of normal family -Focusing on narrative analysis of KBS documentary ‘Gong-gam’ <Child is happine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8), 262-271.
- Kim, H. J. (2002). Modernization project of Korean society and family politics: On the basis of family planning program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5(1), 51-82.
- Kim, H. K. (2013). Failure of the patrilineal stem family system?: Familialism and individualization among the generation of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8.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2), 101-141.
- Kim, H. K. (2014). Family in history: Korean family and family theory of modern 100 years. H. K. Kim et al. (Eds.), *Sociology of Families and Intimacy* (pp. 94-113). Seoul: Dasan Books.
- Kim, H. K. (2017). Alternative intimacy after the family : Co-housing experiments among unmarried youths and the community of care and friendship.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1(1), 155-198.
- Kim, H. K. (2017). The postfeminist family narrative in the Neoliberal era : Focusing on drama <Response> series. *Media, Gender & Culture*, 32(1), 5-39.
- Kim, H. J. (2015). Survival, survivalism, young gener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ology of the hear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9(1), 179-212.
- Kim, H. S., & Jung, S. G. (2020). A critical study on TV documentary and representation of youth generation.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36(2), 77-108.
- Kim, H. Y. (2008). The duality of family changes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47(2), 7-37.
- Kim, H. Y. (2016). From the era of ‘Mobilized Familism’ to the society of ‘Family Risk’. *Journal of Social Research*, 17(2), 3-44.
- Kim, J. I., Kim, M. K., & Lee, E. S. (2021). Effect of YOLO on consumer happiness : Mediating effects of affective impulse buying, cognitive impulse buying, and egoistic value consump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2(5), 41-64.
- Kim, J. Y., & Kim, D. G. (2017). A study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represented in TV drama : A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family and modern desire - Focusing on TV drama since the 1990s. *Communication Theories*, 13(1), 44-93.
- Kim, K., & Jeon, K. C. (2003). *Documentary and history*. Seoul: Hanul.
- Kim, K. I. (2012). *Modern family, modern marriage: A view of modern Korea as a family and marriage*. Seoul: Blue History.
- Kim, M. Y. (2015). Community reality in high modern society. *Society and Theory*, 27, 181-218.
- Kim, S. A., Kang, M. K., Wu, Y. J., & Fan, C. (2007). Variations of family relations focusing on

-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nd Korean television drama.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65, 143-173.
- Kim, S. G. (2016). The cultural politics of discursive construction of younger generation -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ourse of younger generation since 2010. *Media & Society*, 24(1), 5-68.
- Kim, S. K., Yang, O. K., Jo, A. J., Kim, Y. K., Park, S. K. & Kim, M. H. (2004). The emergence of various fami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upport system (research report no. 2004-13).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M. (2016). A refugee named youth. *Culture Science*, 88, 95-113.
- Kim, S. M. (2016). Becoming a volunteer-citizen : Youth, survival ethics, Neoliberalism. *Media & Society*, 24(3), 128-177.
- Kim, S. Y. (2009). An analysis of the Korean television drama 'Mom's Angry' - Focused on Korean family's issues in life course. *Journal of Social Science*, 35(2), 161-192.
- Kim, S. Y. (2012). Study on the various forms of the family in the movie "Family Ties". *Movie and Literary Therapy*, 7, 9-30.
- Kim, Y. M. (2016). Unequal pathways to adulthood: Inequality in labor market and family formation opportunities of young adults in Korea. *Yonsei Journal of Social Science*, 47(2), 27-52.
- Kim, Y. R. (2016). The exploration of alternative community to connect social solidarity with social care: Focus on the case of 2 communities.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0(3), 153-182.
- Kim, Y. S. (2015). Aesthetics of family disorganization and healing shown in Korean TV dramas. *Literary Criticism*, 57, 61-86.
- Kwon, H. J. (2015). Orphaning babies of unwed mothers in adoption practice. *Issues in Feminism*, 15(1), 51-98.
- Kwon, S. J. (2022. 5. 30). One in three houses in Seoul is a single-person household... Shared housing. Necessary to vitalize community activities“Necessary to vitalize shared housing and community activities”. Retrieved 30/5/22 from <https://www.ajunews.com/view/20220530134622275>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7). 2016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Retrieved from 20/11/2021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661
- Kozloff, S. R. (1987). Narrative theory and television. In R. C. Allen (Ed.),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pp. 67-10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ee, C. M. (2011). The personalization of women and the change of family form represented in Korean films.

The Journal of Global Cultural Contents, 6, 165-189.

- Lee, D. I. (2015). Crisis of modern society and an alternative community.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18(4), 95-126.
- Lee, D. S. (2004). Alternative communities in the post-modern ag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8(1), 105-125.
- Lim, I. S. (1999). Family change debate in American academia. *Family and Culture*, 11(1), 23-46.
- Lee, H. S. (2008). A study on gender politics in recent TV family drama and female audi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8(2), 349-387.
- Lee, J. K. (2004). Is the Korean family in crisis?: Feminist critics on 'family strength' discourse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0(1), 229-244.
- Lee, J. K. (2015). South Korean family after patriarchy : From normality to flexibility. *The Korean Cultural Studies*, 29, 283-310.
- Lee, J. S. (2015). A qualitative study for co-habit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s familial alternative.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8(3), 42-71.
- Lee, K. S., & Yun, J. H. (2018). Discourse constructions of contemporary youth through the popular young adult non-fictions. *Media & Society*, 26(2), 77-127.
- Lee, M. A. (2013). We do not want a baby: The meaning of childbearing and the paradox of familism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2), 143-176.
- Lee, S. J. (2017). Diverse family and social policies. *Monthly Welfare Trend*, 219, 5-10.
- Lee, S. M., Choi, E. S., Park, M. H., & Koo, H. R. (2006). A study on TV viewers' behavior on receiving family-related images reflected in soap operas and the determinants on it.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0(4), 163-177.
- McCarthy, B., Hagan, J., & Martin, M. J. (2002). In and out of harm's way: Violent victimization and the social capital of fictive street families. *Criminology*, 40(4), 831-866.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Public opinion on family diversity. Retrieved 20/11/2021 from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5
- Minow, M. (1998). Redefining families: Who's in and who's out. In K. V. Hansen & A. I. Garey (Eds.), *Families in the US: Kinship and domestic politics* (pp. 7-20).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Moon, S. J. (2008). Critical studies on the diversity of diversification discourses of Korean family. *The Journal of Asian Women*, 47(2), 73-107.

- Moore, M. L. (1992). The family as portrayed on prime-time television, 1947-1990: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Sex Roles, 26*(1/2), 41-61.
- Muraco, A. (2006). Intentional families: Fictive kin ties between cross-gender, different sexual orientation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5), 1313-1325.
- Nelson, M. K. (2013). Fictive kin, families we choose, and voluntary kin: What does the discourse tell u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5*(4), 259-281.
- Nelson, M. K. (2014). Whither fictive kin? Or, what's in a name?. *Journal of Family Issues, 35*(2), 201-222.
- Nichols, B.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Oh, M. Y., & Lee, J. Y. (2006). Feminist consideration of community life : Focusing on grutergi as an alternative. *Gender and Society, 17*, 125-169.
- Park, H. Y. (2020. 11. 21). *What's a "normal family?"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Sayuri's 'family right'*. CBS Nocut News. Retrieved 21/11/20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5451058>
- Park, H. S., & Lee, M. R. (2009). Diverse family. M. J. Park et al. (Eds.), *Family and Korean society* (pp. 416-468). Seoul: Kyungmoon Books.
- Park, J. W. (2008). A political-ideolog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alternative' and 'community' in conceptions of alternative communiti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82*, 350-373.
- Park, J. W. (2010). Testimony and media : Reflection on the form of enunciation of the collective memory. *Media & Society, 18*(1), 47-90.
- Park, S. H. (2006). Critical review on the family diversity argument. *Economy and Society, 70*, 215-236.
- Park, S. Y. (2021. 1. 26). *Single marriage, cohabitation is a family, righ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ll hold a public hearing on 26th*. Hankook Daily Newspaper. Retrieved 26/1/21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515330001765?did=DA>
- Rae, H. M. (1992). Fictive kin as a component of the social networks of older people. *Research on Aging, 14*(2), 226-247.
- Ryu, K. H., & Kim, S. O. (2000). The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s as an alternative to childcare.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5*(2), 119-151.
- Rubinstein, R. L., Alexander, B. B., Goodman, M., & Luborsky, M. (1991). Key relationships of never married, childless older women: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46*(5), S270-S277.
- Shim, Y. H. (2011). In search of "Community Family Model of the 21st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cond modernity and individualization theory. *Journal of Asian Women, 50*(2), 7-44.

- Shin, S. J. (1999). Social transition and Korean familis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1), 165-192.
- Skill, T., Wallace, S., & Cassata, M. (1990). Families on prime-time television: Patterns of conflict escalation and resolution across intact, nonintact, and mixed-family settings. In J. A. Bryant (Ed.), *Television and the American family* (pp. 129-163). Hillsdale, NJ: Erlbaum.
- Song, H. R., Sung, M. A., Chin, M. J., & Lee, S. M. (2005). A study on the conceptual discussion of healthy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6), 179-190.
- Song, D. W., & Lee, K. H. (2017). A cultural analysis of the varying modes of survival and the particular structures of feeling among young adult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in an era of fierce competition and widespread social uncertaint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4, 28-98.
- Song, J. R. (2013). Alternative communities in the postmodern age. D. S. Lee. (Ed.), *Happiness and 21st century community* (pp. 191-223). Seoul: Akanet.
- Stack, C. B. (1974). *All our kin: Strategies for survival in a black community*. New York: Basic Books.
- Taylor, R. J., Chatters, L. M., Woodward, A. T., & Brown, E. (2013).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extended family, friendship, fictive kin, and congregational informal support networks. *Family Relations*, 62(4), 609-624.
- Tyus, J. L. (2015). It's all in the family: An historical analysis of diversity and family communication within television sitcoms. In L. H. Turner & R. L. West (Eds.), *The Sage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pp. 337-351).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Voorpostel, M. (2013). Just like family: Fictive kin relationships in the Netherland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8(5), 816-824.
- Watters, E. (2003). *Urban tribes : Are friends the new family?*. London: Bloomsbury.
- Weston, K. (1991). *Families we choose: Lesbians, gays, kinshi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Yang, H. S. (2010). A content analysis of the values reflected on Korean television dramas : Exploring the value orientations of the charact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2), 163-186.

최초 투고일 2022년 03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6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6월 12일

부록

- 강명구·김수아·서주희 (2008). 동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한 가족과 가족 관계 -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사례 비교. <한국언론학보>, 52권 6호, 25-56.
- 강성률 (2009). 한국 영화에 나타난 가족제도의 변화 - <자유부인>에서 <아내가 결혼했다> 까지. <역사비평>, 통권 86호, 514-533.
- 강희경 (2005). '건강가정' 담론의 불건강성. <경제와 사회>, 통권 65호, 155-178.
- 권성진 (2022. 5. 30). 서울 셋 중 한 집은 1인 가구...“공유주택·공동체 활동 활성화 필요”. <이주경제>. Retrieved 30/5/22 from <https://www.ajunews.com/view/20220530134622275>
- 권희정 (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연구>, 15권 1호, 51-98.
- 김경일 (2012).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 김균·전규찬 (2003). <다큐멘터리와 역사: 한국 TV 다큐멘터리의 형성>. 서울: 한울.
-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 이론>, 통권 27집, 181-218.
- 김상민 (2016). 청년이라는 난민 - 국민도 시민도 아닌 난민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 <문화과학>, 통권 88호, 95-113.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8.
- 김선영 (2009). 한국 가족의 현실: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이슈 - TV 드라마 “엄마가 뽀뽀했다”가 선택한 가족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권 2호, 161-192.
- 김소연 (2012). 영화 <가족의 탄생>을 통해 나타난 가족의 다양한 형태 고찰. <영화와문학치료>, 7집, 9-30.
- 김수미 (2016). '자원봉사 시민(volunteer-citizen)' 되기 - 신자유주의 생존윤리와 청년세대. <언론과 사회>, 24권 3호, 128-177.
- 김수아·강명구·우위지에·차이판 (2007). 가족관계의 변이 - 한중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재현. <방송연구>, 통권 65호, 143-173.
- 김승권·양옥경·조애저·김유경·박세경·김미희 (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04-1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애린·임혜빈·장한슬·박주화·기승연·정윤정...이기형 (2016). 헬조선 현상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80호, 40-114.

- 김영례 (2016). 사회 연대와 사회적 돌봄을 잇는 대안 공동체 탐색 - 2개의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권 3호, 153-182.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 <사회과학논집>, 47권 2호, 27-52.
- 김영성 (2015). TV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해체 위기와 치유의 미학 - 2000년대 이후 불륜 드라마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57호, 61-86.
- 김중인·김미경·이은선 (2021). 옴로(YOLO)가 소비행복에 미치는 영향 : 감정적 충동구매, 인지적 충동 구매 및 개인주의적 가치소비의 매개 효과. <광고학연구> 32권 5호, 41-64.
- 김지영·김동규 (2017).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혼외관계' - 전통적 가족주의와 현대적 욕망의 충돌- 1990년대 이후 지상파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3권 1호, 44-93.
- 김혜경 (2017). 신자유주의 시대의 포스트페미니즘 가족서사 -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1호, 5-39.
-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제 47집 2호, 101-141.
- 김혜경 (2014). 역사 속의 가족: 근대 100년의 한국 가족과 가족론. 김혜경 외 공저.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94-113쪽). 서울: 다산출판사.
-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집 1호, 155-198.
- 김혜영 (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권 2호, 7-37.
- 김혜영 (2016). '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 위협'의 사회로. <한국사회>, 17권 2호, 3-44.
- 김홍주 (2002).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권 1호, 51-82.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집 1호, 179-212.
- 김환희·고병진 (2018). 한부모가족 담론의 균열과 변형된 정상가족 신화로의 포섭 - KBS1 다큐 공감 <아이가 행복입니다> 의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8호, 262-271.
- 김훈순·정사강 (2020). TV 다큐멘터리와 청년세대 재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36권 2호, 77-108.
- 류경희·김순옥 (2000).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권 2호, 119-151.

- 문소정 (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47권 2호, 73-107.
- 박승희 (2006). 가족의 다양성론에 대한 성찰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 제70호, 215-236.
- 박주원 (2008). 대안 공동체론에 나타난 '대안' 개념과 '공동체' 개념의 정치 사상적 성찰. <역사비평>, 통권 82호, 350-373.
- 박진우 (2010). 증언과 미디어 - 집합적 기억의 언술 형식에 대한 고찰. <언론과 사회>, 18권 1호, 47-90.
- 박하얀 (2020. 11. 21). "정상가족'이 뭔가요?"...사유리가 댕긴 '가족구성권' 확장 논의. <CBS노컷뉴스>. Retrieved 21/11/20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5451058>
- 박현선·이미란 (2009). 다양한 가족. 박민자 외 공저, <가족과 한국사회: 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삶 읽기>(416-468쪽). 서울: 경문사.
- 백진주·백선기 (2018). 1인 가구 현상, 미디어 재현, 문화적 함의 - TV 드라마 <혼술남녀>에 대한 기호학과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10호, 65-77.
- 변희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 (2000). <최근 가족 해체 실태 및 복지 대책> (용역 보고서 240-3-1).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송동욱·이기형 (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 '삼포세대',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호명에 대한 청년주체들의 체화된 대응과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84호, 28-98.
- 송재룡 (2013). 탈근대 시대의 대안 공동체. 이동수 (편), <행복과 21세기 공동체: 글로벌 대안공동체 현장을 가다> (191-223쪽). 서울: 아카넷.
- 송혜림·성미애·진미정·이승미 (2005). 건강가정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회지>, 23권 6호 (통권 78호), 179-190.
- 신수진 (1999).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전통.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권 1호, 165-192.
- 심영희 (2011).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 2차 근대성과 개인화 이론의 관점에서. <아시아여성연구>, 50권 2호, 7-44.
- 안병철 (2009).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일 고찰 - 제정 배경, 비판,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통권 15집, 331-349.
- 양혜승 (2010).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에 투영된 가치 분석: 등장인물들의 가치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163-186.
- 여성가족부 (2020).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Retrieved 20/11/2021 from <http://www>

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5

- 오미영·이진영 (2006).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 〈그루티기〉 공동체를 통해서 본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젠더와 사회〉, 17집, 125-169.
- 이광석·윤자형 (2018).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언론과 사회〉, 26권 2호, 77-127.
- 이동수 (2004). 탈현대사회 대안공동체.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105-125.
- 이동일 (2015). 현대사회의 위기와 대안공동체.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4호, 95-126.
-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47집 2호, 143-176.
- 이숙진 (2017). 다양한 가족과 사회정책. 〈월간복지동향〉, 219호, 5-10.
- 이승미·최은실·박미희·구혜령 (2006).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의 가족 관련 이미지에 관한 수용행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권 4호, 163-177.
- 이재경 (200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20권 1호, 229-244.
- 이재경 (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통권 29호, 283-310.
- 이진숙 (2015).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아세아연구〉, 통권 161호, 42-71.
- 이충민 (2011). 한국 영화에서 재현된 여성의 개인화와 가족형태의 변화 - 〈바람난 가족〉 과 〈아내가 결혼했다〉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통권 제6호, 41-65.
- 이희승 (2008). 최근 TV 가정드라마 텍스트의 젠더 폴리틱과 여성 수용자 연구 - 〈소문난 칠공주〉에 대한 여성적 독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2호, 349-387.
- 임인숙 (1999). 미국 학계의 가족변화 논쟁. 〈가족과 문화〉, 11집 1호, 23-46.
- 장강섭 (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 -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5권, 173-204.
- 전희경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 서울시 마포·은평 지역 비혼/취어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4권 1호, 75-112.
- 정민우·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한국사회학〉, 45집 2호, 130-175.
- 정성조 (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통권 제123호, 12-39.

-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 계급과 젠더의 결합. <한국여성학>, 24권 2호, 5-37.
- 조항제·홍찬이·강승화·문소영 (2007).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족 표현의 변화: <하늘이시여>와 <굿바이솔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권 6호, 574-617.
- 조혜정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권, 81-98.
- 차윤정 (2016).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상상과 재현의 정치 - 암남공원 해녀 공동체를 중심으로. <코기토>, 79호, 292-320.
- 최현주 (2008). 텔레비전 드라마에 묘사된 성역할의 전도(reverse)와 그 함의: 남성 전업주부 드라마 <불량주부> 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권 4호, 401-438.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Retrieved 20/11/2021 from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661
- 황인옥 (2010). 영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섹슈얼리티와 가족 - <바람난 가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14권, 109-136.
- 황정미 (2014). 가족·국가·사회재생산. 김혜경 외 공저,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30-52쪽). 서울: 다산출판사.
- 황지혜 (2021. 8. 8). 시네마룸·크레이터터룸도 있다, 땀그로브 신설 들여다보니. <중앙일보>. Retrieved 08/08/21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4123390?cloc=joongang-section-moredigitalfirst>
-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 (2017).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 정책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19).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최인희·최진희·유은경 (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6-5).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hatman, S. B. (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김경수 (역) (1990).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화>. 서울: 민음사.
- Cheal, D. (1991).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최연실·유계숙 (역)(1999). <가족학 이론의 현황과 쟁점: 근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하우.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1st ed.). London: Bloomsbury Academic. 이원표 (역) (2004). <대중매체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Fiske, J. (2011). *Television culture* (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곽한주

- (역) (2017). <텔레비전 문화>. 서울: 컬처북.
- Fiske, J., & Hartley, J. (1978). Reading television. London: Routledge. 이익성·이은호
(역)(1997). <TV 읽기>. 서울: 현대미학사.
- Giddens, A. (1982). Sociology, a brief but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Macmillan. 박
영신·한상진 (역) (1983). <비판사회학: 쟁점과 문제점>. 서울: 현상과 인식.
- Kozloff, S. R. (1987). Narrative Theory and Television. In R. C. Allen (Ed.),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pp. 67-10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김훈순 (역) (1992).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
울: 나남.
- Nichols, B.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이선화 (역) (2005). <다큐멘터리 입문>. 과주: 한울.

미디어가 재현하는 가상의 친족으로서 공동체 가족과 청년 담론의 재생산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김환희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오늘날 목격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를 둘러싼 담론의 투쟁들은 기존 가족의 범주와 정의에 물음을 던지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삶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이 연구는 비전형 가족들(non-typical families) 중 하나인 공동체 가족(community family)을 가상의 친족(fictive kin) 이론을 토대로 개념화하고, 2010년 이후 방영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여덟 편의 서사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동체 가족을 재현한 프로그램들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세대 문제와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청년들로, 서로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공유하며 유동적인 연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때 텍스트는 등장인물 간의 대비와 조화, 문제의 원인 탐색과 분석을 생략하는 서사 구조, 공동체 가족의 희망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담화 구성 등 다양한 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세대 문제는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소급되고, 이들의 공동체 가족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만 기능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가 이상화하는 낭만적인 청춘 서사의 재현은 그들 이면에 존재할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있었다. 결국, 국내 다큐멘터리는 외형상 가족 유연성(family flexibility) 담론을 지지하는 공동체 가족을 등장시켰지만 실상 이들의 기능과 의미는 정상가족의 규범성에 기대어 평가되고, 청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동체의 낭만성을 강조하는 서사로 인해, 공동체 가족의 형태적·실천적 차원의 가능성은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재현은 비단 청년들의 공동체 가족에 한정한 것이 아닌, 소위 정상성에서 탈피한 여타의 비전형 가족들의 재현 이면에서도 존재하는 맥락일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담론들을 해석해 나갈 때, 공동체 가족을 포함해 미디어 재현 대상이 지닌 본래적 상징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공동체 가족, 가상의 친족, 가족 다양성, 청년 세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재현